

大韓言論

Korea Journalists Club



月刊

4

2009년 4월 1일

· 친목
· 복지후생 증진
· 언론문화 창달

발행·편집인 趙昌化 인쇄인 신명옥

사단법인 大韓言論人會

☎ 02)732-4797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02)2001-7621

E-mail : kjc1405@hanmail.net

2008년 8월 5일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Fax 02)730-1270

SINCE 1977 www.kjclub.or.kr

제 277호

法·질서 확립 決斷 내릴 때

大韓言論 '09 主題
언론과 國益

오늘의 韓國 긴급진단



남시욱 회우



신동호 회우



조용중 회우

특별 鼎談

南時旭

· 동아일보 편집국장, 논설실장
· 문화일보 사장 역임

申東濤

· 조선일보 편집국장, 주필, 부사장
· 스포츠조선 사장 역임

趙庸中

· 조선일보 정치부장, 경향신문 편집국장
· 연합통신 사장 역임

〈가나다 순〉

사회 : 趙昌化 대한언론인회 회장

글·사진 : 崔熙助 본보 편집위원, 중부대 초빙교수

때 : 3월 18일

곳 :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20층

대통령 나약한 리더십 문제 「李明博이즘」 분명히 세워야

대한언론인회는 李明博정부 출범 1년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언론계 원로 세 분을 초청해 들어보는 좌담을 가졌다. 이들 원로 언론인들은 한결같이 이명박 대통령의 나약하고 애매모호한 리더십과 소수에 끌려 다니는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질타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세력을 몰아내라고 표를 몰아줬더니 대통령만 바뀌었지 아무것도 바뀐게 없다는 것. '이명박이즘'을 분명히 내세우고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언론은 소속사와 이념에 관계없이 언론의 기본인 사실보도와 객관보도에 충실해야 하고, 특히 국기(國基)를 뒤흔드는 일에 대해선 눈을 부릅뜨고 비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좌담에는 趙昌化 회장과 文明浩 부회장, 吳健煥 상임이사, 成樂五 편집위원 장겸 주간이 배석했다.

2·3·4·5면에 정담내용

少數에 끌려 다니는 國政운영 탈피

趙昌化 모시고 보니까, 평생 다른 데 가지 않고 언론 한길만 걸어오신 세 분 선배님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이명박(MB) 정부가 출범하고 1년이 더 지났는데 여러 가지 사건으로 걱정스런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작년 1년을 촛불시위 여파로 보내고 울들어선 용산사건과 북한의 대남 협박연동 등등으로 어떤 분은 MB정권이 금년 상반기 까지 제대로 못 하고 가면 내년엔 레임덕에 들어가 아무 것도 못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합니다. 또 어떤 분은 좌파정권 10년으로 망가진 대한민국에 천우신조로 우파정권이 들어섰는데, 그 정권이 힘도 쓰지 못하고 주저앉는 결과가 된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합니다. 국회는 지금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이리 저리 소수에 의해 끌려다니고 용산사건 등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같이 정부의 강력한 해결의지나 비전 없이 그냥 좌파들의 농간과 여론조작에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놓고 언론 선배들의 고견과 처방을 듣고자 합니다.

趙庸中 이명박 정부 1년의 상징적 사건 등을 되돌아 보면 MB정권의 무능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국회에 사회 각계 인사를 참여시켜 국민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건 국회의원들이 직권을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대법관 문제만 하더라도 본말이 전도됐습니다. 재판관여야 아니냐로 흘러가는데 그런 걸 초래한 이매일이 어떤 루트를 타고 누구에 의해 그것이 무슨 목적으로 유출됐느냐,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좌파정권 10년에 쌓인 좌파의 네트워크가 저지른 전형적 질서문란행위가 아니겠는가, 봅니다. 얼마전 정치학회의 MB정부 1년 평가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 세 사람중 두 사람이 다시 우파정권이 등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고 한 사람만이 유보적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사회적 정치적 무드로 보아 MB 후에 다시 우파정권 등장이 무망한게 아닌가 봅니다. 지금의 좌파 네트워크 세력이 유지되는 한 상당히 비관적이다. MB정권이 여간한 노력과 끈기와 전투정신을 갖지 않고선 어렵겠다, 하는 겁니다. 요컨대 (좌파 네트워크의) 그 뿌리가 무엇이나, 하는 문제와 함께 MB정부의 구조적인 정치라는게 대통령이 되면 저절로 되는 걸로 아는 값싼 접근방식과 나이브한 생각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걸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대화채널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고 해

서 국회를 무시하는 것 같은 자세를 보이면 그건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좌파의 자세나 비슷합니다. 그런 식의 어프로치를 극복하지 않으면 사태는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申東濤 MB정권에 기대가 컸는데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그런 기대에 어긋나 모든 이가 한결같이 “이게 나라냐, 나라도 아니다. 내 발디딜 곳이 어디냐”고 말합니다. 착잡하고 괴로운 심정입니다.

南時旭 두 분이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론인에게 요구되는

식의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도 그걸 못 합니다. 지난 1964년 6·3사태 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일부 언론인과 지식인이 문제라면서 직격탄을 날렸어요. MB가(작년 촛불시위 때)북악산에 올라 서울 시내를 내려다 보고 아침이슬 노래를 떠올렸다는 나약한 얘기가 하나씩 김동길 교수가 박정희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말합니다. MB의 실용주의가 좌우이념이나 아우르고 있어 지지기반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실용주의라는 국정철학운영이 애매하게 되고, 그러니까 강력한 리더십 얘기가

째는 전임자 때부터 저지른 일이니까 나에겐 책임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국제정세가 나쁘니까 나 혼자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 셋째는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사포내면 그만 아니냐, 했다는 겁니다. 우리 체제로서 MB에게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건 이명박이즘(ism)을 내세워라, 이명박 개성을 내세워 앞으로 끌고가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국회에 미디어법 관계 위원회를 만들어 100일 협상을 한다는데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무얼 하느냐, 직접민주주의 장점을 살리는지 몰라도 국회무용론과 정치무용론, 정치불신 같은 사태를 초래하는 건 대단히 우려할 사태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MB의 개성이 드러나고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영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참모들이 그런 걸 꾸미고 그렇게 끌고 가도록 기대합니다.

趙昌化 좌파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특성이랄까, 실체는 무엇일까.

趙庸中 부연 설명하면 좌파 네트워크는 우리 눈에 절대 보이지 않는 게 특성입니다. 보이지 않는 선전 선동에 의한 네트워크도 될 수 있고 우파가 절대 따라 갈 수 없는 좌파만의 네트워크입니다. 오늘에 나타난 현상만이 아니라 해방직후 좌우 대립부터 연원을 따져야 합니다. 우파는 분열하고 의지가 약한 반면에 좌파 네트워크의 힘은 더 공고해지고 어떤 초점 하나를 잡아 집중 포화하는 힘이 강합니다. 한나라당의 절대다수 의석은 선거에서 반사적으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좌파 만큼 공고하거나 결집력이 있거나 파괴력이 없습니다. 그 결과는 국회운영에

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으니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申東濤 대한민국의 성립과 발전을 유지 지지해온 세력이 우파고,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친북 통일세력이 좌파입니다. 좌파 가운데는 대한민국을 자해하고 파괴해서 적화통일을 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좌파가 있는가 하면 무의식 동조세력이 더 많다고 봅니다. 동맹이 민족보다도 우위에 있을 수 없다는 민족우선을 주장하는 대통령 취임연설로부터 전교조 선생님들이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될 나라였던 것처럼 좌파성향 교육을 시키고 인식시킨 데서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와 언론은 갈등을 조절하고 조화를 이뤄나가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조장해서 국민혼란을 초래합니다. 사회갈등을 시정하지 않으면 위기가 되고 남북갈등 이상으로 남북갈등, 집안싸움이 심해집니다.

3면으로 이어집니다.



좌로부터 남시욱 조용중 신동호 회우.

국회 「국민위」 설치하는 의원 職分 포기 한 것 與圈 무소신-무능력-무철학... 돌파력 잃어

중립성은 사실보다 객관보도에 있습니다. 보수언론이라고 해서 규탄을 받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보수언론이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으면 국가보안법이 개정되고 한총련을 합법화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 핵심은 국정 표류입니다. 방향을 못잡고 있는데, 그 건 바로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부 여당의 국정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소신을 펴지 못하고 국내 정국이나 남북관계를 주도하지 못합니다. 필요하면 상대방 비판도 해야 하는데 안합니다. 20여년전 영국 정부 초청으로 영국에 가서 의회를 방문했는데 대처 수상이 테임스 강 오염문제로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처가 철의 여인답게 그건 노동당 정부 때 잘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오히려 역공을 퍼더라구요. MB정부가 당하고 있는 걸 보면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정치라는 게 정국을 주도하고 국민여론을 이끌어 갈 줄도 알아야 하는데 170여

나옵니다. 과거 독재시대의 권위적 리더십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닙니다. 다수당으로서 한나라는 무소신 무능력 무철학으로 돌파력이 없습니다. 1년이 훨씬 넘었는데 과연 정권교체가 됐나 싶고 대통령만 바뀌었지 아무것도 바뀐게 없는 듯합니다. 북한의 갖은 협박을 받으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김정일 규탄 데모라도 일어나야 하는데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국가분위기가 문제입니다. 만약 여기서 강력하게 규탄데모하면 평양 김정일이 남남갈등 부추겨봤자 이게 아니구나 할 거예요.

趙庸中 지도자가 사회질서를 위해 자기 개성을 뚜렷이 밝히는 게 여러 덕목중의 하나입니다. MB는 될 수 있으면 좌파의 불평분자도 끌어안고 가려는 것 같고 우파는 여차피 내편이라고 보는 안일한 자세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해요. 언젠가 어떤 프랑스 대통령은 대통령이 댈 수 있는 핑계거리 3가지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고 해요. 첫

「國基」흔드는 세력 단호히 척결해야

2면에서 이어집니다.

좌파가 10%도 안됐던 시대에 비해 30% 정도의 넓은 세력의 좌파로 본다면 1000만명 이상은 대한민국의 존재와 역사를 왜곡, 부정하는 위태로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라도, 나라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치유책은 지금이라도 정치와 언론이 법과 원칙을 지키도록 해야만 빠른 길이 아닌가 합니다. 국민이 정치와 국회를 증오 대상으로 삼는 건 정치인 스스로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치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즉 지역과 문벌, 학벌, 또는 단체에 따라서 나눠먹기식 이익집단적 행동으로 과격하게 행동합니다. 나한테 해로운 단체나 개인을 말살하려는 이런 풍조를 고치려면 법과 원칙을 존중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해야 합니다. 용산사건은 법과 원칙을 파괴하는 근원적 사건입니다. 정당원이 국회에 난입하고 농성하고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그래놓곤 언제 그랬느냐는 듯 국민은 경제난으로 외유는 커녕 죽을 지경인데 100여명의 의원들이, 폭력농성에 앞장 섰던 의원과 정당 대표가 우르르 나랏돈으로 외유에 나섰습니다. 염치를 모르는 정치인은 비판 받아 마땅한데 공개질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의아할 따름입니다.

南時旭 정부의 문제는 리더십의 빈곤과 아마추어리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있던 정치 기술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겠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쁜 건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정국운영의 기술까지 무시해버리면 문제지요. 인수위부터 잘못했어요. 정권을 인수할 생각은 않고 영어 몰입식교육 같은데 몰입했습니다. 정치권력을 안이하게 본 것입니다. 촛불시위로 리듬이 깨졌어요. 그 전만 하더라도 보수정권이 계속 갈 것 같았는데 촛불 이후 깨졌어요. 촛불시위 원인의 하나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잘 못한 것입니다. 협상경험을 무시하고 서둘러 망쳤습니다. 내각과 비서진에 이른바 '고소영' '강부자'를 빼놓더라도 무경험 인사를 등용한 게 화근입니다. 거기에서 대선결과를 승복 안하는 일부 세력이 문제를 더 키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불복 세력의 교묘한 여론조작 행위는 대선 직후부터 생겨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정권교체는 안 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권력기관에 전 정권 인사들이 그대로 포진해 있고 초기 내각과 보좌진들이 보좌기능을 못해 촛불시

위가 보수세력의 장기집권 꿈을 깨버렸습니다. 아마추어리즘의 극단적인 예는 미디어법안입니다. 작년에 처리했어야 하는데 국민위원회는 야당 작전에 말리고 여당 집행부의 무력함을 보인 것입니다. 이회창 총재가 말한 것처럼 그러려면 국회 해산하지 무엇 하자는 겁니까. 100일후 순순히 될 것 같아요, 안 됩

대표되는 보수 우파언론과 그 나머지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군소 신문의 행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사사건건 대립각을 보입니다. 언론불신과 정치불신으로까지 발전하는 요인으로 대단히 우려되는 국면입니다. 과거 어떤 미국 학자는 제임스 레스턴 같은 유명한 칼럼니스트를 개인으로선 존경하지만 소속사

점이 많습니다. 자사 이기주의만 따르지 말고 대한민국 장래와 역사를 애들한테 올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기네 이해관계가 있으면 시비를 가리지 않는 습관과 버릇을 반성하고, 경제살리기 위해 노조도 협조해야 합니다. 노조에서 반대할 이유가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문민정권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론탄압을 했습니다. 거기서 세워놓은 기구를 MB정부는 하나도 철폐

하지 못했습니다. 부술건 부수어야 하는데 기자실에서 대못 뽑아낸 것 하나밖에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나라 대기업에 노조 전임자가 너무 많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려면 낮에 일하고 밤에 노조활동을 해야 합니다. 노동귀족이 어떻게 커미션을 받습니까. 미봉책을 쓰지 말고 노조탄압 소리를 들어도 노조개혁을 해야 합니다. 개혁하려면 훌륭한 교육자, 기업인을 복돋워 주어야 합니다. 언론도 잘 못하는 기업, 노조, 학생을 꾸짖는 용기있는 언론이 돼야 합니다.

趙昌化 3월 4일자 PD협회보를 보면 올해의 PD상에 작년에 광우병 과장보도를 한 MBC PD수첩을 선정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은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지도 않고 코멘트 하지도 않습니다. 1년을 허송세월한 MBC PD수첩 시상을 국민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申東濤 편집 상충부와 말단 기자 간에 소통이 안 되고 하고 명령을 내려도 안 들어 먹습니다. 자파 이익에 부합하면 보도하고 이익에 반하면 보도 안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南時旭 언론이 문제인데 우리 언론 역사는 한성순보 이래 한 120여년 됐지요. 과거 언론인상은 구국 항일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존경할 만한 점이 있었습니다. 50년대 말까지만 해도 존경스런 언론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60년대 이후 산업화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론인들이 윤리감을 잃어가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2008년 18대 총선때 선거에 나가려는 언론인들의 공천로비가 가장 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언론인 스스로 권력 품에 들어가는 집단현상을 보인 거죠. 집단이기주의에 지역주의와 이념에다 정파성이 뒤섞여 냉철해야 하는데 이성을 잃고 기초적인 직업윤리인 객관보도마저 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소속사 이기주의로 보도해야 할 것도 안 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윤리적 위기입니다. 1960년대 최석채 선생이 일찍이 "언론인들은 편집의 손에서 떠났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4면으로 이어집니다.



남시욱 회우



신동호 회우



조용중 회우



조창화 회장

니다. 6월에 가면 또 난리납니다. 좌파 진보세력의 전략이 치밀해 국민이름으로 다수결 원리를 무효화하려는 속셈입니다. 대기업, 대

를 연상하면 싫증나고 보기도 싫은 생각이 난다고 익살을 떨었다고 합니다. 신 사장 말씀처럼 언론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지 어느 편이 되는 건 문제입

左派 네트워크 무의식적 동조세력 차단 與圈 개혁 미봉책 아닌 적극적대책 필요

주어 장기집권 노린다는 잘못된 논리를 내세웁니다. 지금 언론체제가 5공 방송 체제인데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하지요. 박정희 리더십이나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 같은 지도자 리더십을 칭송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국가위기에 지도자 결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정치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러나 정국수습을 못하고 표류하지만 MB의 경제위기 극복 여하에 따라 정권향방이 결정날 것이라고 봅니다. 아직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입니다.

趙庸中 대통령 자신이 집도를 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 환부를 도려낼 수 없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표류, 무력화에 언론이 덩달아서 편 가르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언론이 한 목소리를 내는 건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정파 이해 관계에 편승해 오직 어느 한 편만 드는 일에 열중한다면 그보다 더 해로운 건 없습니다. 조·중·동으로

니다.

申東濤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오늘의 현실이 언론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언론산업은 다른 산업이 발전한 것 이상으로 양적 질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방송위력은 대단합니다.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MBC, KBS의 활약은 대단해 국민여론을 오도하고 결국 현재에서 대통령 탄핵을 무산시켰습니다. 여러 학자, 신문이 지적을 했어도 방송은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연주 사장이 KBS에 가서 역사왜곡 드라마와 보도특집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촛불시위 때도 MBC는 공식사와 한번 없었고 PD는 검찰소환에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MBC, KBS가 무슨 공영방송입니까. 상업주의를 탈피하고 투쟁한다면서 2중성을 드러내는 모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MBC, KBS 개혁해야 합니다. 30개 자회사를 거느린 회사가 대기업이지 뭡니까. 언론 반성해야 합니다. 고쳐야 할

言論은 사실-객관 보도에 충실하라

3면에서 이어집니다.

편집이 경영주와 권력의 손으로 넘어 갔다는 뜻이지요. 자기 지면과 방송시간을 집단이기주의로 사용화(私用化)해선 안됩니다. 언론의 당면 위기, 아주 심각합니다. 윤리운동을 펴야합니다. 소속사와 이념에 관계없이 언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프로페셔널리즘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편으론 매스 미디어에 긍정적 신호도 보입니다. 과거처럼 대자본과 큰 시설이 없어도 됩니다. 어느 한 회사에 소속돼 있지 않아도 됩니다. 훌륭한 인터넷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자기만 잘 하면 영향력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빅 밴(Big Bang)적 전환기라 할 수 있습니다.

申東濤 최근 김현희 사건이 다시 불거져 나왔죠. 좌파정권때 일부 방송과 신문이 짜고 남한에서 조작한 사건이었던 것처럼 몰고 가려 했다는가, 어쨌든가, 하는 거고. 또 이런 일이 있어요. 휴전선에서 100Km이상 떨어진 수원비행장 밑에 이북에서 파놓은 터널이 있어 거기에 불도저가 빠졌다는 거예요. 김포 일대에서 이북 땅굴 소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심층보도가 안되고 있어요.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라고 속 시원하게 보도해주면 좋겠는데 답답해요.

趙庸中 어느 사회부장이 말년에 창경원 벚꽃 스케치 기사를 썼는데 사실은 그 부장이 실제로 창경원을 찾아간 것은 신문사를 그만 두고 난 뒤였다는 거예요. 타성을 극복하려는 언론의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지요. 미국 편집인 협회가 10여년 전부터 신뢰회복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게 아쉽습니다. 오늘 우리 언론이 정파와 이념, 이해관계의 포로가 되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50년대에도 신문의 정파성은 대단히 강했지만 거기엔 상당한 자제 같은 게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자제마저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趙昌化 미디어법을 둘러싼 국회내 폭력난동 사태, 용산사건 때 떠들썩했던 언론보도도 이상하게 시간이 흐를수록 희미해져 갑니다. 언론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개선할 것을 개선해야 하는데 재발방지 장치를 유도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趙庸中 저널리즘의 한계 같아요. 날마다 일어난 일을 보도하는 원칙엔 충실하지만 그 시대 이슈를 다루는 데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신문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들어가 봤는데, 50년대 일어났던 일을 96년, 98년에 와서 다시 따지는 칼럼을 몇 건 보았어요. 트루먼 대통령 때 소련의 간첩 혐의를 받던 재무차관이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로 진출된 적이 있는데, 90년대에 와서 그 때 그것이 어떻게 됐나 따지는 기사였습니다. 우리는 과거사건을 뒤에 따지는 노력을 소홀히 합니다.

南時旭 언론의 의제설정 기능이 중요한데 정치부 기자가 사건 기자에 머

무는 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즘 신문에서 두 가지 느낌이 있는데, 하나는 지면 낭비가 심하다는 거고 국제뉴스에 국제부 기자가 자기 이름을 달고 써요. 해설은 그럴 수 있지만 스트레이트 기사에 어떻게 버젓이 이름을 넣을 수 있는지 몰라요.



조창화 회장(좌)과 남시욱 회우.



조용중 회우(좌)와 신동호 회우.

전사 장병에 대한 보상문제도 제대로 보도가 안됐어요.

南時旭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 이런 기구 다 없애야 하는데 한나라, 참 무식해요. 구조적 문제를 개혁해야 합니다. 국가예산으로 왜 신문을 배달 보급합니까.

다.

趙庸中 수세를 공세로 국면 전환하는 게 정치인데 법질서를 세우는 좋은 기회를 잃지 않았나 봅니다. 불법 폭력에 대해 정부가 지킬 건 지키도록 의연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오히려 심정적으로 동정하는 것 같은 자세로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대중 노무현은 노화한 정치술수가 있었는데 MB엔 그런 게 없을 뿐 아니라 너무 평범한게 아닌가, 여러 계층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안 받으려는 것인지, 실력자 밑에서 길러진 CEO의 한계가 아닌가, 정치력과 정치술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南時旭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술수 안 부린 건 아닙니다. 검찰 수사에 시간을 끌면서 경찰청장 내정자를 자진 사퇴시켰어요. 사람이 죽었다면 동정이 가지요. 그래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너무 나약해요. 결과적으로 잃은 건 경찰이 충성 안한다는 것이지요. 누가 목숨을 바쳐 충성하겠어요. 이상하게 풀었어요. 잘 못했으면 해임하든가, 아니면 놔두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너 밑의 CEO의 한계이고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청와대에서 행정관이 지시를 내려 사건 뒤집으라는 그런 졸렬한 방식이 아니라 홍보와 국민여론으로 종합 대처하는 기술이 전혀 없어요. 물론 도시빈민층은 한나라가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납득시켜야 합니다.

趙昌化 법조문젠데요. 대법관 지낸 이는 분 한테 신도 대법관 재판 관여여부 사건을 물어봤어요. 말도 안되는 사건이라고 해요. 만약 그 사람이 물러났다고 가정하면 사퇴하는 쪽으로 물고 간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면 나가는구나, 해서 재미를 붙이면 사법부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趙庸中 옳은 얘기입니다.

南時旭 법관은 탄핵이나 형사처벌에 의하지 않고선 그만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건 별거 아닌데, 본인이 알아서 하라면 골치 아프지요.

申東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정부가 원하는 대로 재판한 경우가 많았어요. 3심까지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하루 아침에 방면되고 대통령까지 되는 나라가 우리 나라입니다.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흔들렸다는 증거지요. 사법부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왜 행정부만 비판 받아요. 경찰청장을 임기전에 해임하면 누가 불법 시위를 막겠어요. 데모하는 쪽이 항상 정의입니까. 왜 여당 중진 의원이 경찰청장 사퇴 쪽으로 먼저 나발을 불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여론재판을 차단해야 합니다.

成樂五 언론 문제인데요, 조·중·동 보수와 군소 신문 방송 쪽이 편가르듯 보도를 하는데 개선 해법이 없을까요.

5면으로 이어집니다.

記者들 소속社 이기주의 행태 탈피 시급 政府도 제대로 된 弘報로 여론 이끌어야

申東濤 법조계리든가 국세청 같은 권력기관의 전관예우 관행을 보면 우리 사회는 끼리 끼리 먹고 살게 돼있구나 하는 그릇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무현 집 재산세가 왜 3만원밖에 안됩니까. 청와대자료 유출사건은 수사법석을 떨더니 그후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南時旭 어느 분이 노무현 집 갔다 와서 글을 썼는데 아방궁 같더라며 아주 잘 썼어요. 지방 자치단체에서 생각 복원에 10억원을 지원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광수라든가, 그런 돌아가신 분이려면 몰라도, 이해할 수 없어요. 언론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 심층보도를 해야 하는데 사건 저널리즘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요.

申東濤 동의대사건 경찰피해 유족이라든가 용산사건 순직 경찰, 서해교전

趙庸中 이걸 대한언론인회 회우의 어느 부인이 꼭 전해달라고 해서 하는 애긴데요, 요즘 대한언론인회보가 읽을 게 많고 다른 매체에서 볼 수 없는 시사비비를 설득력 있고 분명하게 잘 짚어줘 좋다고 해요.

趙昌化 MB에 대한 실망과 걱정이 커지면 커질수록 차기정권을 좌측에 넘겨 줄 가능성을 높이는 게 아닌가 합니다. MB에 그동안 몇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용산사건만 하더라도 경찰이 무얼 잘못 했느냐, 하는 겁니다. 숨진 사람들은 안됐지만 진짜 잘 못한 이들을 혼내고, 버릇 고치고, 수세를 공세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申東濤 조 회장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더 보탬 것도 뺄 것도 없습니

「4·19」 49돌... 오늘의 民主主義를 돌아보다

내년이면 4·19민주혁명이 쉰 돌을 맞는다. 반세기가 지난 것이다. 4·19를 주도했던 당시의 대학생들이 이제는 거의 모두가 생업에서 은퇴를 하여 고희의 나이에 백발이 성성한 모습으로 변해 있다. 50년이 훌쩍 지나갔지만 꿈이 빠져 보면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이루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60달러 정도에 부정선거와 독재로 얼룩진 경제와 정치에서 일약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 낸 지난 50년은 세계의 어느 곳에 내 놓아도 충분히 자랑할 만한 것이다. 경제는 물론이고 우리의 정치도 그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비록 군부 권위주의 체제에서부터 문민주도로 여야간에 정권교체까지 가능해진 것은 아직 20년도 안 되지만 이제는 국민 대부분이 독재체제의 재등장은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민주화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도 보았듯이 여전히 국회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욕설이 오고 감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낙후한 곳이 정치분야, 아니

‘정치판’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4·19가 일어났던 50년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지역간의 대립과 이념적 갈등이 오히려 민주화를 이루면서 국가와 사회발전의 진행을 계속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파행을 겪고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국민들 심지어 다수의 정치 지도자들마저 민주주의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또한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첫 번째 잘 못된 인식은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의 혼동에서 오고 있다. 민주

주의의 다수결 원칙에 집착한 나머지 오로지 표를 모으는 데에만 치중하여 민주주의가 강조하는 절차의 적법성이나 소수의견이 무시되고 있다. 선거는 많이 깨끗해졌지만 해서는 안 될 공약을 마구 남발하고 있고, 일단 선거에서 이기면 다수의 지지를 받았으니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고

특별기고



유 세 희

· 한양대 명예교수
· 사단법인 4월 회장

포퓰리즘-평등사상-진보개념 잘못된 인식 촛불시위 등 폭력화된 政治참여로 표류

생각한다. 남남갈등을 증폭시킨 대통령들의 북한방문이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을 놔두고 거리의 시위대에 동참한다든지, 국회에서 폭력행태를 서슴지 않는 것도 행위의 적법성이나 적합성보다는 우선 대중에 영합하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민주주의의 핵심 사상인 ‘자유’와 ‘평등’에 대한 오해이다. 원래 자유와 평등은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서 자유 없이는 평등이 불가능하고 평등이 없으면 자유가 불가능한 것인데 우리 국민들은 양자를 따로 분리해

서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즉, 주로 자유는 정치적인 의미로, 그리고 평등은 경제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어서, 자유보다는 평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두 개의 가치는 서로 상충한다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대체로 우익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평등보다는 자유를, 좌

와서는 오히려 좌익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우익이 진보적인 경향도 허다했다. 예를 들어 모택동과 등소평의 경우, 등소평은 덜 좌익이었기 때문에 개혁 개방을 통해 오늘의 경제대국인 중국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진보라고 모두 바람직한 것이 아니듯이 보수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닌 것이다.

‘참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에도 문제가 많다. 정치에 국민이 많이 참여할수록 더 민주적이라는 생각이 바로 그 한 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정부를 ‘참여정부’로 명명한 것도 이와 같은 인식과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의 발전이 국민의 참정권의 확대와 궤를 같이 해왔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수준이 정치참여의 정도와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많은 정치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일시의 ‘폭발적’ 참여는 정치발전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파탄을 가져오는 것이 지금까지 나타난 실례이다. 문제는 어떤 식의

참여냐에 달린 것이다. 참여가 민주주의 체제가 허용하는 방식에 의한 것이라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저해할 뿐이다.

최근의 잦은 촛불시위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인 것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표명의 차원을 넘어 점차 그 양상이 폭력화되어 사회 질서유지의 최후보루인 경찰이라는 공권력이 무시된다. [4]

4면에서 이어집니다.

趙庸中 해법 있으면 좋겠는데 쉽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교과서 같은 얘기지만 양심에 비추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지금은 엄청난 국제 경쟁시대입니다.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식 경쟁에만 너무 열중합니다.

申東濤 조·중·동을 한 묶음으로 우파언론이라고 하고 한겨레를 비롯한 기타 여러 신문을 좌파라고 볼 필요는 없다고 보아요. 신문마다 역사가 다르고 출발과 사풍이 달라요. 굳이 한 목소리로 우파 단결, 좌파 단결, 이렇게 떠들 필요 없이 독자 판단에 맡기면 됩니다. 언론계 스스로가 노조 없애고 노조 탈피해야 합니다. 편집국장을 왜 투표로 뽑아요. 군대에서 사단장을 투표로 뽑는 거나 같지요.

南時旭 산업사회 발전 이후 이데올로기의 다양화는 불가피한 추세라고 봅니다. 다만 언론계 병폐를 시정하려면 기본에 충실하는 것, 사실보도하고 주관 넣지 않고 정파를 초월해 객관보도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文明浩 데스크가 기사를 고치면 기자가 고친 기사를 노조로 가져가 노조에서 데스크에게 왜 고쳤는가 압박을 해 데스크가 주눅들고 귀찮아 다음부터는 고치지 못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南時旭 에디터십(editorship)이 없어진 거지요.

文明浩 한국의 경제 위상은 세계 속에서 올라 가는데 국회내 폭력사태, 사회 무질서, 이런 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얼마나 저해할까요.

趙昌化 여러 진단을 해주셨는데 비관적이고 힘들다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이 난국을 타개하고 다음 정권이 좌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말씀 해주시죠.

申東濤 적화통일이 안 되도록 언론도, 정치도 그 방향으로 목표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건국역사를 비하하고 폄하하고 파괴하는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 존립을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南時旭 이런 얘기하면 오해할는지

모르지만, 좌파도 좌파 나름입니다. 오바마 같은 좌파도 있고 시장 좌파, 복지진진 좌파라면 우파만 집권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경계할 세력은 국기를 흔들고 정체성을 허물려는 대한민국 부정파괴세력, 증북 적화세력입니다. 언론인은 언론활동을 통해 국가정체성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무현이 임기말 평양가서 김정일에게 통일장에 제도를 제거하겠다고 합의해 주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좌파정권 10년에 좌경세력을 막은 건 주류 언론의 공헌입니다. 이념편차는 별 도리가 없습니다. 노동자대변 정당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에 속하는 건 언론이 눈 부릅뜨고 보도해야 합니다. 언론 본연의 비판기능이란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趙庸中 문 부회장이 아까 외국서 어떻게 보겠는가,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실력과 사실 이상으로 평가받고 높은 점수를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엔 우리 언론이 애국심 갖고 보도한 공

이 크다고 봅니다. 앞으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 회장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방법을 물으셨는데, 요컨대 정치는 정치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제 분수를 지키는 겁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합니다. 무엇보다 앞서야 하는 건 법과 질서입니다. 미국에서도 폭력이 난무하고 뉴욕 지하철에 낙서가 홍수를 이룰 때 그걸 물리친 큰 무기는 ‘law and order’ 운동밖에 없었어요.

南時旭 언론이 대한민국 가치관을 지키는데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趙庸中 그 게 언론의 기본이지요.
申東濤 시위할 때 보면 결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 말은 나라를 지킬 때나 써야지 함부로 쓰면 안됩니다. 5년 임기에 6개월도 안된 대통령을 결사 물러 가라, 이 게 말이 됩니까.

趙昌化 긴 시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4]

論
壇

「잡 세어링」은 마법의 등잔이 아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잡세어링(일 나누기)을 제 2의 금 모으기운동에 비유, 올해 우리의 시대정신이 되게 국민운동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도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도 잡세어링을 내셔널 브랜드로 키우겠다고 말하는 등 최근 정부 관계자들은 물론 언론에서까지 잡세어링이 마치 바로 눈앞의 대량 실업사태를 막아주는 마법의 등잔인양 장밋빛으로만 포장하고 있어 짚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절박한 근로자들을 호도(糊塗)하고 있다.

잡세어링은 거의 10년 전 실패한 경영기법으로 판정을 받아 이를 도입했던 국가는 물론 지구상의 어느 국가도 지금은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자는 이미 2002년 7월 모

일간 경제지에 외국의 사례들과 잡세어링의 모델국가로 알려진 네덜란드의 칼 반 윌프렌(Karel Van Wolferen) 교수의 “아픔을 나눠 아픔을 없앤다”는 잡세어링은 “실패의 유산”이란 말을 인용해 부작용과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잡세어링은 임금을 삭감하거나 올리지 않고 근무시간을 단축, 노동시간의 적절한 배분으로 일정의 노동량을 지급보다 더 많은 사람이 나눠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잡세어링은 경기불황에서 탈출할 때까지 단기적으로 6개월, 장기적으로 1년을 넘기면 안 되며 그리고 노동시간에 비례해서 성과를 올리는 직무에만 장점이 있으나 시간과 관계 없는 재량 직무에는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목표한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

해서는 근로자 모두가 각각 역할에 맞는 숙련도가 균일하게 갖춰져야 하며 일하는 속도도 일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잡세어링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싶다.

1. 고용유지형(긴급 피난형)

경영부진에 빠진 기업이 긴급 피난 조치로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 현재 취업 중인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정기간의 유급휴가제도 응용. (독일)

2. 고용연장형(중고령자 대책형)

중고령자의 잉여인력과 정년이 임박한 해당자의 고용확보를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 (일본)

3. 고용창출형

청년실업자와 구조조정 해당자의 고용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근로자 한 사람마다의 근로시간을 줄여 일을 나누는 것. 현재 우리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유형. (프랑스)

4. 다양취업대응형

비정규직제를 적극 활용, 현재의 근로자와 잠재적 근로자 간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일수의 다양화로 복합적으로 운용. (네덜란드)

이 4가지 유형을 보면 1. 2.는 불황 타개를 위해 긴급 피난을 위한 모델이



박진서

· 본회 회우
· 전 아더앤더슨컨설팅
코리아 대표이사

며 경기가 활성화되면 원상으로 환원한다. 여기에 비해 3. 4.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 형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다.

우선 이 제도를 도입해 실업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다는 네덜란드와 일본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정리해 본다.

Nederland Model이라고까지 극찬을 받던 네덜란드의 잡세어링(네덜란드에서는 워크세어링)도 지금은 그 부작용을 애써 감추려 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고용의 유동성

본격적인 디플레이가 진행되었다. 또 일하려는 사람의 근로의욕을 빼앗고 임금삭감이 장기화되자 성과보수제에 역행된다고 반발이 커졌다. 때문에 지난 2002년 7월 일본 NHK에서는 전문가들이 나와 2시간 넘게 토론을 벌여 유행에 밀려 도입된 잡세어링은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렇게 이미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난 잡세어링은 결과적으로 근무시간 단축으로 생기는 여유를 선용하는데 사회적인 인프라가 열악하여 시간을 그대로 낭비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자기 능력계발을 위한 재충전도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부업도 할 수 없다. 집안에서 편히 쉴 공간이나 형편이 안 되고 취미도 별로 없어 오직 직장에서만 매달려 왔던 우리 근로자에게 임금 대신 시간을 제공할 경우 이를 생산적 활동으로 선용하게 될지 의문이다.

더구나 해마다 일자리가 10만개씩 사라지고 있고, 또 특수전문 커리어의 근로자와 누구나 할 수 있는 커리어의 일반 근로자와의 소득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고용환경에서 그것도 저임금으로 치닫고 있는 일까지 나눈다는 것은 공존사회를 이룬다는 목적은 바람직하지만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있는 고용환경 변화에 맞춰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재교육 프로그램 등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P]

부작용이 더 많아... 직업 재교육 등 대책 마련 시급

2009 무사고 山行-건강 기원

본회 산악회 40여명 북한산에서 始山祭

봄기운이 완연한 계절. 본회 산악회(회장 안종우)는 지난 2월 28일 토요일 북한산 향로봉에서 2009년 시산제 행사를 가졌다. 이 날 시산제에는 조창화 대한언론인회 회장과 이구열, 황대연, 김재영, 송두빈 원로 회우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날 조창화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본회 유일한 동아리인 산악회가 더욱 발전하여 좋

은 친목 모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어 안종우, 황대연, 지용우, 김재영, 강진형, 정운종, 이창호, 이상호, 최귀조 회우가 각각 협찬했다. 한편 시산제와 산행을 마친 후 시내 은평구 연신내 소재 음식점에서 뒷풀이를 갖고 산우들의 건강과 우정을 다졌다. 시산제에 동참한 회우는 다음과 같다.

△강명수 △강진형 △김기원 △김재영 △김영효 △김세경 △김의수 △김해도 △김휴선 △박승채 △송두빈 △송선무 △신대근 △안종우 △안평선 △유진수 △윤석웅 △윤익한 △이구열 △이상호 △이우진 △이운래 △이정세 △이창호 △임응식 △임현태 △임한순 △장욱 △전의식 △정운종 △조덕일 △조창화 △지용우 △지정식 △최귀조 △최상목 △최의호 △황대연 △김두근



시산제 행사뒤 기념 촬영.



시산제뒤 풍성한 뒷풀이.

新聞시장 새 변화 예고

중앙일보 版型 혁신을 보면서

중앙일보가 2월 16일부터 작은 크기로 판형을 바꾸었다. 기존의 대판보다는 작고 타블로이드판에 비하면 약간 넓은 베를리너(Berliner)로 불리는 중간 크기다. 이전의 신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이한 모습이다. 우리 신문의 발자취를 돌이켜 보면 판형을 키우는 발돋움과 페이지를 늘리는 몸집 불리기로 일관한 역사였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판형을 과감하게 줄이는 모습으로 신문의 새로운 역사를 쓰려 한다. 그러면 중앙일보의 판면 축소가 역발상 역주행인가. 아니다.

이런 판형을 확정하기 전에 작년 1월부터

특별기고



정진석

· 본회 명예회우
· 한국외국어대 언론정보학부 명예교수

부터 판형을 바꾸었고, 2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초의 일요 신문 “옵서버”(The Observer, 1791. 12.4. 창간)도 2006년 1월 8일부터 판형 축소에 들어갔다. 서구 신문의 추세가 한국에도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로 타임스를 들었을 뿐이다. 판형의 변경으로 타임스는 다양성과 융통성을 주는 편집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의 신문 시장이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태세가 되어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좁은 지면과 큰 지면을 함께 놓고 보면 어쩐지 왜소한 느낌이 든다. 비교할 다른 신문이 없는 일요일에 발행되는 “중앙 SunDay”만 볼 때와는 다르다. 오랜 습관의 탓도 있을 것

편집 다양화로 독자 선택폭 넓혀 신문 紙面 일단 進化의 조짐 보여

이미 자매지 “중앙 SunDay”를 베를리너로 발행하면서 다양한 연구와 시도를 해 온 끝에 결론을 내린 판형이고 야심 찬 모험이다. 나는 중앙의 판형 변경을 우리 나라 신문업계의 변화를 선도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같은 시도는 서양의 신문이 가고 있는 추세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영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권위지 “더 타임스”는 1785년부터 219년간 계속되던 대판(브로드 슈트) 발행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2004년부터 이른바 ‘콤팩트 사이즈’로 판형을 바꾸었다. 지면은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베를리너보다 가로 비율이 크다. 초 미니 스커트처럼 약간 방정맞다고 할 인상이다.

영국의 세력이 막강했던 20세기 초반의 더 타임스는 지금의 대판보다 지면이 약간 더 넓었다. 첫 면은 기사가 아니라 1단 짜리 짧은 ‘알림’ 성격의 토막 공고 또는 광고로 가득 채웠다. 기사와 논설은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간 다음부터 시작된다. 타임스는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모든 신문들이 오늘의 모습으로 기사를 전면에 내세울 때에도 전통과 권위를 고집했다. 변함 없이 초기 신문의 모습을 고집하다가 1950년대가 되어서야 기사를 1면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전통을 지키면서 시류를 외면하던 더 타임스조차 ‘콤팩트 사이즈’라는 판형으로 바뀌는 세상이다. 다만 일요 신문 “선데이 타임스”는 대판을 고수 중이다. 더 타임스가 세계 신문의 표준이라는 말은 아니다. 영국에서는 “가디언”이 2005년 9월

이고, 개인의 취향에도 달려 있을 것이다. 강렬한 인상을 주는 큰 제목과 그에 비례하는 여백을 시원하게 처리할 수 있는 편집에 익숙한 눈에 베를리너 지면은 어쩐지 성이 차지 않는다.

나는 기존의 대판에 쓸 데 없이 공간을 낭비하는 듯한 편집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아침에 받아보는 좁은 지면에는 쉽게 적응이 안 된다. 광고주들의 입장은 어떨까. 작은 지면을 선호할 광고주도 당연히 많을 것이다. 넓은 지면에 넣으면 주목도가 떨어지는 광고가 작은 지면에서는 크게 보이는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파트나 자동차 같은 광고는 넓은 지면을 선호하지 않을까? 어떤 판형을 선호할지 광고주는 여러 가지로 고려할 것이다. 광고의 속성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단정적으로 말할 입장은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독자나 광고주가 차츰 베를리너에 익숙해질 것이다. 이미 이같은 판형을 선호하는 독자도 많을 것이다. 용지와 잉크의 절약도 기대할 수 있다. 우리가 오랜 기간 모델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일본의 신문을 뛰어넘어 국제화를 표준으로 삼는다는 자체로서 나는 중앙일보의 선택을 지지한다.

언젠가는 뒤를 따를 신문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현재의 판형을 그대로 고집할 신문도 있을 것이다. 중앙일보가 야심 차게 모험의 첫 발을 내디딘 뒤에도 대판 신문을 지키는 신문이 함께 가면서 신문시장에 다양성과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면 독자로서는 즐거운 일이고, 신문산업은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주]

「記者」호칭 斷想

어느날 TV에서 아나운서가 뉴스를 진행하다가 “보도에 00기자”라고 한다. 그것을 쳐다보고 있던 김 모씨가 “왜 방송사에서 저렇게 보도하는 사람을 보고 기자라고 하느냐”며 주위 사람들을 둘러본다. “그러면 뭐라고 부를까요” 했더니 “입으로 보도하니까 口者나 說者, 아니면 取材者라 해야 될 듯하다”고 한다.



李善熹

· 본회 논설위원
· 전 경인매일 논설위원

듣기에는 우스갯소리 같았으나 사실 방송은 紙面이 없으니까 그런 말도 나올 듯하다. 그리고 보면 통신도 紙面이 없으니 통신원 또는 취재원이라고 해야 할 듯했다.

지금 부르고 있는 ‘기자’란 호칭이 바뀌어 내려온 과정을 보면 1883년 창간한 한성순보와 1886년 창간한 한성주보 때는 ‘訪事人’ ‘探事人’으로 썼고, 한성주보 제 28호(1886년 9월 13일)에는 ‘日報館의 記事人’으로도 썼다.

그러다가 1898년 4월 9일자 매일신문에는 ‘記載員 李承晚 崔廷植’으로, 동년 5월 21일자 매일신문에는 ‘저술인’, 동년 9월 14일자 제국신문에는 ‘기자’로 썼다.

그 뒤 1899년 3월 7일자 제국신문에는 다시 ‘探報員’으로 썼다. 여기서 볼 때 ‘기자’로 쓰다가 ‘探報員’으로 다시 쓴 것은 당시로 보서는 아주 적절하고 무게있는 용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1920년대 조선·동아·시대일보 때부터는 확실하게 기자로 썼다. 당시는 논설쪽에도 논설반 기자 또는 논설부장, 논설부 기자로 썼는데, 논설부도 기자라는 것을 확실히 했었다.

그런데 요즘 색다른 언론사 부서 명칭이 나타났다. ‘어문연구소 기

자’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원래 있는 부서 명칭이 영어 발음화된 것이 아니라 한문화된 명칭이다.

어쨌든 원래의 ‘교열기자’라면 교열을 봐서 적는 사람이니 교열기자라고 부를 수 있겠으나 어문연구소 기자라고 하면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다. 연구소는 기자보다 연구원이 맞을 것 같은 생각이다. 모든 것이 영어화되어가는 마당에 거꾸로 한문화되어가는 것은 좀 이상하다. 지금 불어오는 영어바람의 속도를 보면 머지않아 기자 호칭도 영어발음으로 바뀔 듯 하다.

그리고 탈선 기사를 왜 사이비(似而非)기자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더러는 궁금하기도 할 것이다. 사이비란 말은 일제 때 많이 나돌았는데, 즉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고 비아냥거리던 말이다.

그 말이 광복 이후 시대로까지 전해 내려와 60년대 만해도 ‘사이비 기자 구속’ 등으로 일간신문에 많이 쓰였다.

사이비란 말은 일제 때 많이 나돌았는데, 즉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고 비아냥거리던 말이다.

그 말이 광복 이후 시대로까지 전해 내려와 60년대 만해도 ‘사이비 기자 구속’ 등으로 일간신문에 많이 쓰였다.

사이비란 말은 ‘겉은 제법 비슷하나 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사이비 애국자, 사이비 문인, 사이비 기자 등으로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보고 비아냥거렸다.

애국자면 애국자였지 애국자 비슷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슷하다는 말은 특히 직업을 놓고 얘기할 때는 성립이 안 된다.

사세가 약한 신문사 기자라든가 기자였으면 기자였지 사이비 기자란 말은 안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주]

인보길 회우 인터넷신문 ‘뉴데일리’ 창간

大韓言論과 紙面 제휴협정

인터넷 신문 ‘뉴 데일리’ 사장에 최근 취임한 인보길(사진) 회우는 사이트를 확대 개편하고 “새출발 주제” 선포식을 개최한다. 오는 4월 16일 오후 5시 프레스센터 20층에서 발표될 ‘뉴 데일리’의 주제는 “Save Internet! 대한민국의 빛, 한반도의 어둠을 물리쳐라”이다.



인보길 회우

세계적 IT강국 한국의 인터넷은 갈수록 “거짓과 불법과 불량난에 병들어 순기능이 파괴되어간다”고 진단한 인 회장은 “촛불집회와 같은 정치선동이나 미네르바 소동이 보여주는 경제교란, 인격살인에

의한 연예인 자살 등 범죄와 체제파괴의 네트워크로 전락한 인터넷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디지털조선일보의 창립대표로 인터넷신문의 선봉장이었던 그는 “다시 인터넷 미디어를 맡았으

니 아름다운 사이버세계를 가꾸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면서 “관심있는 분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 데일리’는 대한언론인회 회보인 ‘대한언론’을 전제하기로 하고 양측이 제휴협정을 맺기로 했다. [주]

범죄 피해자 집중 조명 눈길... PD賞 시상 눈살

“아빠는 지금 천국에서 무슨 국에다 밥 말아 먹어?” 9살난 딸의 천진한 질문에 옆에서 밥을 먹던 어머니는 다시 한번 오열한다. 살인사건 피해자 가족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까지 접근되지 않았던 소재가 텔레비전 화면을 뒀다. 3월 13일 밤 9시 45분 ‘MBC뉴스 후’는 ‘두번 우는 범죄피해자’란 타이틀로 살인사건 피해자 가족들의 사건후 엉망이 된 일상생활을 집중 조명했다. 정신적인 공황에 휩싸이고, 경찰과 언론에 의해 2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살인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상상외로 심각한 것이었다. 살해당한 남편의 부검을 원치 않았건만 법에 따라 부검을 해야 한다는 경찰의 강경입장에 두번 울어야 하는 부인의 고통을 어찌 말로 설명할까. 강호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 중에는 이미 집전화와 휴대폰 번호를 모두 바꾸고 외부와의 연락을 끊어버린 사람도 있었다. 또 어느 아버지는 피살된 딸의 휴대전화로 2년간이나 매일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는데 2년이 지나니까 다른 사람이 받더라고 울먹였다. 사건 이후 엉망으로 바뀌어버린 피해 가족들의 일상생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려한 제작진의 노력은 높이 평

이었다. 법으로만 존재하면서 전혀 실효가 없는 범죄 피해자 구조법을 보완하는 것은 이제 정부의 몫이었다. 또 한가지, 유영철같은 살인마를 살려주자는 것이 살인제 폐지론자들의 주장이라면 이 주장은 과연 합당한가. 우리 시민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에 대한 조명으로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뉴스후 취재

진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면서 앞으로의 후속 프로그램을 기대해 본다.

박홍 전 서강대 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최근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거론하며 고 김수환 추기경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에 대해,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박홍 총장신부는 3월



신대근

- 본보 편집위원
- 전 MBC보도제작국장
- 전 충주·대구 MBC사장

마치 시체에 칼을 꽂는 것 비슷하게 한다”면서, “이것은 철학적으로 무식하거나 아니면 아마도 좌익사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본다”고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은 “김 추기경이 강정구나 국가보안법 문제에 관해 말한 내용을 보면서, 민주주의니 관용이니 하는 것이 말로는 하기 쉬운 일이지만 우리 사회의 정치문화로 정착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거듭 확인하기도 한다”며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반대한 이유를 김 추기경같은 분 마저도 납득하지 않으셨으니 앞길이 얼마나 험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라고 김 추기경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같은 표현이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 박 전 총장의 직격적인 발

슬PD가 선정됐다고 지난 3월 4일자 회보를 통해 발표했다. MBC가 발행하는 “주간 MBC”도 이를 받아 4면 톱 뉴스로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엄청난 영향력이 큰 한국PD연합회가 선정한 수상작이 무엇인가에 대해 필자가 시비를 걸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단지 이 단체가 이 작품 제작 실무자를 수상자로 선정함으로써 일어나는 한 가지 의문은 버리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즉 이 프로그램에 대해 사과명령을 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이 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사과방송을 한 MBC의 입장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이다. 필자가 이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다른 많은 국민들, MBC의 사과방송을 지켜 본 많은 시청자들은 이에 대해 전혀 의의가 없을까. 무릇 어떤 상이든 그 상의 권위는 수상자를 결정하는 사람들의 아집이나 독선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많은 국민들의 판단에 의해 지켜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하나의 해프닝이었다.

KBS 1TV ‘시사기획 썸’이 3월 17일 밤 10시 ‘청년실업 100만 시대’를 방영했다. 모처럼 현실경제 위기를 실감케

범죄피해자 日常 생활 적나라하게 보여준 노력 평가 PD賞 선정 사과방송까지 한 PD수첩에 賞 주다니...

가받을 만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일부 이진 하지만 너무나 끔찍한 인터뷰 내용이 여과없이 그대로 방영됐다는 점이다. (“망치로 머리를 세번이나 짚어요, 칼로 30방이나 찌르고요, 그리곤 손목을 끊었어요.”)

그렇다면 살인범은 어떤 입장일까. 21명이나 되는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한 유영철은 과연 뉘우치고 있을까. 유영철을 면담한 심리학자는 “그가 걸으려는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눈빛과 얼굴표정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연간 1,000여건에 이르는 살인사건도 큰 사회문제이지만 그 피해자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는 프로그램의 요구도 적절한 것

6일 평화방송 “열린 세상,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살아생전 이 갈등의 시기에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신 김수환 추기경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관용과 상대주의’를 언급하면서 김 추기경을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물론 생각할 자유가 있고 글 쓸 자유가 있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참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박 전 총장은 “포용도 좋지만 뺑문제와 자유 인권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포용할 때 어떻게 되겠나, 한국은 적화통일된다”면서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10몇년 전 운동권 학생들이 하던 비슷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것도 비겁하게 추기경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언이 방송전파를 탐으로써 화제가 되고 있는데, 박 전 총장은 노 같은 사람은 차라리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충고하기까지 했다. 대통령이 현직을 물러난 뒤에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물론 정답은 없다. 그러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현직에서는 큰 점수를 따지 못했지만 퇴임후의 처신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커다란 시사성을 주고 있다.

한국PD연합회(회장 김영희)는 제 21회 한국PD대상 올해의 PD상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고발한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가”의 이준근, 김보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매년 55만명이나 되는 고급 인력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우리 현실에서 청년 실업만큼 심각한 문제도 없다. 대학을 나오고도 취직을 못해 조그만 어선을 타는 청년, 취직 대신 이른바 ‘취직’을 택하는 여학생들, 이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직후련이나 향후 취업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정부기관들의 인턴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 정규직으로의 전환과는 거리가 먼 기업 인턴제도의 문제점 등 각종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다는 정부대책의 문제점을 파고든 제작진의 열의가 느껴진다. 현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더 많은 기획프로그램의 제작을 기대하며 여기서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방향을 생각해 본다.

4월 건강포럼 17일 개최

성의학회 김경희 원장 특별 강연



김경희 원장

대한언론인회 4월 건강포럼이 4월 17일(토) 오후 2시에 명동 이운수 비뇨기과 4층에서 열린다.

4월 건강포럼은 “노년기 밤이 두려운 이유”란 주제로 코넬 여성전문 비뇨기과 원장이자 이화여대 의대 외래강사, 국제성의학

회 정회원으로 있는 김경희 원장이 일간지와 잡지에 기고했던 성 칼럼을 중심으로 1시간 동안 강연할 예정이다.

한편 3월 건강포럼은 3월 14일 이운수 비뇨기과에서 부부행복클리닉 최강현 원장을 초청해서 ‘노년의 건강, 행복한 성’을 주제로 특별 건강강좌를 열었다.

이 날 강좌에서 최 원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가정의 행복과 부부의 금실이 중요

하고 노년기 건강수명을 위해서는 스트레스 제거, 충분한 영양 섭취, 규칙적인 운동과 성생활 유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월 건강강좌에는 강좌 개설 이후 가장 많은 30명의 회우가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고 강좌후 푸짐한 회식 기회도 가졌다.



3월 14일에 열린 건강강좌.

경제면 企業 환경 개선 둔감 의례적 내용 일관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있다. 경제학자 슘페터는 “새로운 결합을 시도함으로써 시장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자 정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려는 정신’이다.

그러니까 기업의 본래 목표는 ‘자본과 기술과 노동력을 투입해 값싸고 질 좋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의 축적이나 부의 독식이 아니다. 기업은 부를 창출하는 중요한 도구이면서 한 나라의 국부를 지탱하는 수단이다.

기업과 기업인은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이며 존재다. 우리의 산업화 역사가 일천해서인지, 아니면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는 유교이념에 찌들어서인지, 그것도 아니면 잠시 사회주의 세력의 관리와 영향을 받아서인지 우리 사회가 기업과 기업인을 ‘돈벌이에 눈이 먼 벌레’ 쥘쥘로 여기는 아주 어설픈 인습에 젖어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은 우리가 북한보다 30배나 잘사는 나라가 됐지만 30여년 전만 해도 우리는 북한보다 열악한 경제 상황이었다(1974년에 역전됨). 중동의 사막에서, 베트남의 정글에서, 태평양의 파도 위에서, 북미의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파탄 흘린 결과다.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세계 250여개 국가 중 13위에 랭크되어 있다. 인구와 군사력, 기술력, 지적재산 등을 평가한 국력 종합 비교에서는 18위다. 그런데 해외에 나가 한국에 대해 무엇을 아는지를 물어보면 전쟁위험지역 화염병시위 김치 불고기 등이 고작이다. 현대자동차나 대우건설 삼성전자 한진해운 등을 들먹이면 상당한 수준이다. 그렇게 해서나마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는 33위다. 인도(27위) 중국(28위)보다 뒤처진다.

재벌기업이라고 해서 온갖 규제를 가하고, 기업을 부조리의 온상으로, 임금착취를 일삼는 악덕업자로 지목, 기업을 해체하고 기업인을 구속하는 풍속도 속의 그 기업과 기업인이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형성하는데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기업에 대한 규제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업종별, 자산 규모, 종업원 수, 공장의 규모, 매출 규모에 따라 해야 할 수 없이 많은 반시장적 규제가 따른다. 이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범주를 벗어나기를 꺼리는 이유가 되고 있으며 중견기업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커지는 경우에는 세금이나 부담금까지 올라가는 간접규제도 만만치 않다. 기

업인 입장에서 보면 기업이 커지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3월 임시 국회에 상정된 금산 분리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안 등 경제 살리기 관련 법안이 여·야의 대치로 처리되지 못했다. 입으로는 경제를 살려야 한 다면서 당락과 제 밥그릇 쟁기기를 앞세우느라 우를 범한 것이다. 특히 이에 대한 언론의 태도는 정상배보다 못한 수준이었다. 재벌기업 규모신문을 포함한 일부 언론은 법안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에는 아랑곳없이 ‘악법’으로 치부하려 들었다. 경제전문지조차 가급적 외면하려는 지면 구성으로 일관했다.

“경제 살리기 용으로 포장된 이 개혁 법안은 자칫 ‘개악(改惡) 법안’이 되거

신문시평



최병요

- 본보 편집위원
- 전 한국경제 편집위원

즉 재벌이나 대기업은 은행지분을 4%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했다. 그냥두면 재벌이나 대기업이 은행까지 말아먹어 공통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이번에 국회에 상정된 법안의 골자는 기업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4%에서 고작 10%로 늘리자는 것이다. 즉

기업의 은행지분 소유의 폭을 좀 넓혀주어 외국자본의 지배위험을 줄이자는 것이다. 한국경제가 더 이상 외국자본에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이유 때문이다. 작년 한 해 외국인이 주식시장에서 빼내간 돈(순매도)은 34조원을 웃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안팎으로 치솟았던 것도 외국 기관투자가들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운 탓이다. 고

자총액제한을 폐지하고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입법제안은 바람직하다. 경제력 집중이라는 낡은 개념은 아예 버려야 하고 세상이 제 모습을 찾도록 해야 한다. 우리 나라 금융회사를 외국자본의 지배 하에 놓이게 할 것인가 아니면 국내 산업자본의 지배 하에 놓이게 할 것인가.” (한국경제 다산 칼럼), “산업자본의 은행증자 참여는 은행의 대출여력을 확대하고 기업의 투자와 생산 및 고용확대 등 선순환 구조가 기대된다. 금산분리를 완화하면 정부의 재정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서울경제 3/5 사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진출을 엄격히 가로막던 금산분리가 일부 허물어진 한국에 기업과 경영혁신의 모범답안이던 GE의 위기는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울경제 3/10 특파원 칼럼).

경제전문지의 경우 친기업적인 관심을 보이고는 있지만 반대론자들을 압박할 만한 설득력이 부족하고 지면할애 또한 인색하기 짝이 없다. 심지어 같은 신문에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는 물타기 식, 기회주의적 태도도 엿보인다. 금산분리와 기업을 보는 시각이 이렇듯 미지근하고 애매하며 자기모순이라면 독자는 실망할 수밖에 없다. 왜 좀 더 신랄한 지적과 다양한 특집과 강력한 주장을 망설이는가.

종합지의 경우도 섹션화한 경

「금산 분리 완화」 내용 제대로 알고 보도 하는지… 반대론자 설득 논리 부족… 紙面배정 마저 인색

나 금융위기를 부를 ‘폭탄 법안’이 될 수 있다. 재벌과 대기업이 은행을 쉽게 소유하면, 미국의 예에서 보듯 100년 장수한 세계적 기업들이 그룹 통째로 추락한 꼴을 당하기 쉽다. 그림자은행(파생상품으로 돈벌이에 급급하는 행태)의 발호로 한탕주의에 내달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조선 3/13 송희영칼럼), “금융감독정책이 잘못되어 미국 등 세계경제가 온통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모든 금융기관들이 신용을 창출하는 민간 통화기관으로서 직간접적 형태로 서로 연쇄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한겨레), “금산분리 완화로 은행을 재벌에 넘겨주면 지금과 같은 금융위기가 재발할 때에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한 몸이 돼 부실의 늪에 빠질 위험이 크다. 우리 경제에 시한폭탄을 얹어놓은 꼴이다.” (경향 3/5사설).

경제면과 사설/칼럼을 통해 금산분리 완화의 부당성과 위험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법안의 실제 내용과 기업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서의 논리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어설픈 논리와 본질 비껴가기로 그나마 마지못해 한번 짚어본다는 식이다. 산업자본이 금융업을 소유하는 것을 규제한 금산분리법은 지난 좌파정권의 유산이다.

환을 여파로 멸절한 중소기업들이 부도위기에 몰렸다. 외국인이 팔고 나가는 거야 막을 수 없다지만 그 여지를 주었던 것은 그들의 주식지분이 40% 이상 높아진 현실 때문이었다. 외국인 지분이 그렇게 높은 나라는 없다.

그렇다고 외국자본이 한국 국경을 마음대로 넘나들지 못하게 장벽을 칠 수는 없다. 혹자는 예전처럼 외국인 주식투자 비중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고 한 번 들어온 외국자본은 일정 기간 잡아두자(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의 ‘먹튀 논란’ 등을 막기 위해)고 주장하지만 이는 쇄국정책이나 다름없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예전대로 묶어두는 것은 지속적으로 외국자본에 휘둘리는 꼴을 참아야 한다는 주장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이 두렵다고 하지만 그것은 기우다. 은행돈을 변칙적으로 빼내지 못하게 감시하는 금융감독원이 있고 자율적으로 여신심사를 하는 성숙된 은행원이 있으며 특히 이를 총체적으로 감시하는 우리의 언론이 있다. 혹 언론이 이에 대한 의구를 버리지 못한다면 감시 기능을 발휘하지 않겠다는 패배의식의 발로임에 틀림없다.

“지금까지 경제력 집중억제 명분으로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방해해온 출

제면을 제공하면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채테크에 대해서는 난리를 치면서도 국가경쟁력이 달린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다른 신문을 베끼는 모자이크 만으로 일관하는지 안타깝다. 참고로 전통을 자랑한다는 D일보와 M경제의 경우 ‘금산분리’에 대한 사설/칼럼 검색에 지난 한 달간 ‘관련 기사 없음’으로 나왔다.

기업이 고작 10%의 지분으로 은행을 사금고화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금산분리 완화는 조금이나마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국가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일이다. 우리에게만 반도체 산업을 일군 이병철, 세계 제일의 조선업을 키운 정주영, 머리카락도 잘라 수출했던 김우중, 석유화학 혁명을 주도한 최종현, 가전산업의 혁신자 구인회, 국민보건에 앞장선 유일한 등 출중한 기업인들이 있다.

제 2의 독립운동에 비견할 만한 이러한 기업과 기업인을 아끼고 존중하는 풍토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세계시장의 무한경쟁을 뚫고나가 부국부민(富國富民)을 이루는 대도다. 좌과우과, 진보 보수로 나뉘어 편들기 하려는 욕망은 국익과 직결되는 사안의 본질 앞에서 미시적인 문제가 되어야 한다. 독자로부터 그러한 평가를 받아야 언론다운 위상을 지킬 수 있다. [4]

放送발전 一念… 바르고 고운 말 쓰기

영원한 방송인 한영섭(韓永燮·81). 그는 정부수립 이듬해인 1949년 1월 서울 중앙방송국(KBS 전신) 공채 1기 기자로 언론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격랑의 시대를 관통하며 보도방송의 기틀을 다졌고, 6·25 한국전쟁 때 유일한 방송종군기자로 전선에서 죽음의 고비도 넘겼다. 요즘은 한국방송인동우회(약칭 放友會) 회장을 맡아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하며 '바르고 고운 말 쓰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막말公害 너무 심각하다”

본회 부회장을 역임한 韓永燮 회우를 만나러 지난 3월 18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풍림 VIP빌딩에 위치한 방우회 사무실을 찾았다. 깔끔한 정장차림의 노신사가 반갑게 맞이한다. 팔순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정하고 얼굴에 화색이 감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실감한다. 사무실 한쪽 벽에는 하얀 2층 건물에 철탑 안테나 2개가 우뚝 솟은 빛 바랜 경성방송국 흑백사진이 실루엣처럼 걸려 있다.

“82년 전인 1927년 2월 우리 나라에서 첫 전파를 발사한 최초의 방송국 사진입니다. 중구 정동에 있는 영국대사관 뒤쪽이었지요. 당시는 정동 일대가 구름지어서 장안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이었어요. 6·25전쟁 때 건물이 파괴되어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졌습니다.”

- ‘첫 방송 터’ 표지석은 어디에 있습니까?

“1987년 9월 ‘첫 방송 터’ 유허비를 세웠으나 옛 방송국 동산이 헐리면서 덕수초등학교 교정 안으로 옮겨졌어요.” 초등학교 축대 계단 위에 있는 ‘첫 방송 터’ 조형물은 대리석 기단에 동, 서, 남, 북 네 방위를 나타내는 열 십자 안테나와 전파를 상징하는 세 개의 원으로 구성되어 둘 보인다.

-방우회는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1966년 6월에 설립했으니 43년 됐지요. 2000년부터 회장을 맡으면서 방송위원회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했어요”

방우회는 그 동안 ‘전국 방송 가시청지역 총합’을 7집이나 발간하여 방송문화 발전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1991년 9월 ‘항일 단파방송 연락운동’을 기리기 위해 여의도 KBS 본관 옆에 ‘勿忘碑’도 세웠다. ‘단파방송 사건’이란 일제가 전파관제를 통해 외국방송의 수신을 엄격하게 통제하던 시절인 1942년, 成基錫 기술부 직원이 短波수신기를 조립하여 ‘미국의 소리’ 등을 수신하여 국내외 애국지사 등에게 전달하여 독립운동을 도왔다. “그 사건으로 200여 명의 방송인들이 연행되어 옥사하거나 옥살이 등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들의 값진 우국충정을 잊지 말자는 취지로 勿忘碑라고 이름 붙였다”고 설명한다.

“또 하나 중요 사업은 1990년부터 해마다 ‘바른 말 보도상’을 제정하여 앵커와 방송기자를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바르고 고운 말 쓰기 운동’을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전개할 계획입니다. 요즘은 거친 말과 막말, 욕설이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드라마와 인터넷의 막말은 물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9>

회우초대석

韓永燮

- 한국방송인동우회 회장
- (주)三光 회장
- 전 KBS 보도실장

인터뷰 / 이규섭(본보 편집위원·칼럼니스트)

론 정치인들이 먹살잡이를 하며 거친 말을 쓰고 있으니 어린이들 대화에도 욕과 상소리 투성이 아닙니까?” 막말 공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꼬집으며 “바르고 고운 말을 써야 아름다운 사회가 열린다”고 강조한다.

“아나운서와 방송기자들도 말의 高低長短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아쉽다”고 덧

가는 길목 金城이라는 산악지대 작은 촌락을 지날 무렵 매복중인 인민군 유격대의 기습공격을 받았습시다.”

그는 군용트럭 운전석 뒤쪽에 등을 기대 채 군인들의 호위를 받으며 죽음의 공포에 떨었다. “6대 독자인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 때 한 병사가 옆으로 다가와 “자세를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계룡대 방문 기념사진. 왼쪽부터 김계원 예비역 대장, 한영섭 방우회 회장, 유재홍 전 국방장관, 김진섭 본회 원로 회우, 백선엽 예비역 대장.

서울 중앙 방송국 공채 1기… 6·25때 유일한 방송 종 뉴스 검열 통보에 사직… 기업인으로 성공… 다시 放友

불이다. 아나운서와 초등학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재교육과 세미나 등 구체적인 캠페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자세를 낮추세요” 병사의 말 좌우명
-유일한 방송 종군기자로 전선에 투입되기 전 군사훈련도 받으셨지요?

“1950년 2월 육군사관학교에 입소하여 당시 육사 10기생 내무반에 1명씩 배치되어 2주 동안 그들과 똑같은 훈련을 받았어요.” 고된 훈련이었으나 총기취급 명령에서 군사작전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받아 종군 취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종군기자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1950년 9월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이후 유엔군과 국군은 임록강까지 진격하는 전과를 거뒀습니다. 그 해 11월 청진으로 진격하는 수도사단에 종군하기로 하고 서울신문사 鄭元國 기자와 함께 서울을 떠났어요. 철원을 지나 원산으로

낮추세요.” 다급하게 말했다. 병사들의 총구가 불을 뿜는 가운데 트럭은 전 속력으로 달렸다. 그 때 운전석 쪽이 쿵하고 둔탁하게 울렸다. 옆에 있던 병사가 내 쪽으로 쓰러지며 신음을 토해냈다. 그 병사의 총을 들어 총탄이 떨어질 때까지 미친 듯이 언덕을 향해 쏘았다. 옆에 쓰러진 병사는 “어머니!”를 부르며 숨을 거뒀다.

“그 병사가 고향에 홀로 계신다는 어머니를 부르며 전사한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저러온다”며 눈시울을 붉힌다. 그 후 중공군 개입으로 퇴각하면서 ‘흥남부두 철수’ 때 군용선에 피난민을 실어 나르게 된 비화와 처절했던 광경, 1·4후퇴로 부산 임시수도에서의 열악한 방송활동, 군사정전회담 취재 등 참혹했던 그 시절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종전 후 숨진 병사의 말이 강하게 각인되어 ‘자세를 낮추며 살자’를 좌우명으로 삼게 됐다”는 것. “종군기자를 거치면서 자세를 낮추며 사는 겸손을 배웠고, 매사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한다.

‘방송장악 기도’ 강력 반발

격랑의 파고를 헤치고 1957년 남산중턱 새 사옥에 입주하여 방송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듯싶었다. 그러나 4·19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방송은 다시 혼미를 거듭하며 흔들렸다. 민주당 신파와 구파의 엇갈린 주장과 노골적인 압력으로 국영방송의 벽을 뛰어넘기 힘들었다는 것.

1960년 10월, 당시 방송을 관장하던 내각사무처장관이 그를 불렀다. “뉴스 원고를 사후 검열할 테니 녹음하여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민주주의를 모토로 출범한 민주당 정권에서 방송장악을 위한 통제라니…” 즉석에서 거절하고 보도실장(현 보도본부장)을 사임했다. 방송이 좋아 방송기자가 된지 14년만이다. “동족상잔의 비극과 자유당 독재정권을 거쳐 민주당 집권으로 방송의 꽃을 피워보려던 꿈은 사라졌지만 혼란기 보도방송의 기틀을 다지는 데 일조한 것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다”고 회고한다.



정

20세기 운동 펼친다



동덕여자대학교 덕수초등학교 축대 계단 위에 우뚝 선 '첫 방송 터' 기념비를 설명하고 있는 한영섭 회우.

군 기자 會 활동

-한국방송 태동기의 산 증인으로 다시 방송 기자가 된다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요즘은 전문화 시대 아닙니까? 군사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기자가 되고 싶다”며 깔깔 웃는다.

-요즘 방송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공정성과 객관성의 부족이 아쉽습니다. 이념을 초월하여 공정성을 기하는 게 방송보도의 생명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회보 '大韓言論'의 올해 주제 '언론과 국익'은 시의적절한 기획입니다.”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중학교 때는 유도선수로 활약하며 몸을 다졌어요. 젊었을 적엔 골프도 쳤으나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 아령과 역기로 근육을 풀고, 1주일에 3~4회 방배동 뒷산을 가볍게 트레킹 하는 정도죠.”

건강의 비결은 꾸준한 활동인 것 같다. 방송국 사임 후 1965년 월간 영자지 'KOREA LIBERTY'를 발행했다. 외교공관 등을 대상으로 전후복구 상황 등을 소개하는 '홍보 대사' 역할이었다. 경영이 어려워 폐간한 뒤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株)三光을 창설, 기업인으로 인생 2모작을 시작했다. 특유의 친화력으로 금성사



젊은 시절 한영섭 회우와 부인 강영숙 여사의 다정한 모습.

星力會 회장, LG전자협력회 중앙회장 등 대외활동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사업은 3남 基朝(46)씨에게 물려주고 오전엔 방우회 사무실에 나오고 가끔씩 회사에 들른다. 담배는 15년 전에 끊었고, 소주는 반병 정도 마신다고 한다. 가끔씩 종군기자, 언론계 선후배, 사업가 등을 만나 대중음식점 맛집 나들이를 하는 재미도 쏠쏠하다는 것.

우리들 모임 코스모스會

코스모스는 1950, 60, 70년대에 주로 활약한 일선 경제 기자 침묵모임이다.

회원은 한 때 30명 넘은 적도 있었으나 지금은 10명 내외. 80세 이하는 없다.

언제 설립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 정해진 모임의 룰, 기록, 재산도 없다. 회원이 자발적으로 모여 정보교환하면서 배우는 즐거움을 느낀다. 반세기 동안 매월 거르지 않고 모였다.

경제 기자의 특징은 현실 경제에 밀착한 프라그마티즘. 이념·사상·아카데미즘·곡학아세 등에는 흥미 없는 편이다.

코스모스의 대표인 회장 박재권씨는 개성商魂의 진골이다. 자기 과시한 적 없고 겸손하다. 평생의 처신은 시대흐름에 맡기



이병천

· 본회 회우
· 전 동아일보
경향신문 기자

착제 역할을 능숙하게 하고 있다.

김귀제씨는 일본 오사카에서 다년간 정기간행물 발행인도 했고, 한·일 2중 타향살이, 재일교포 인맥을 통한 풍부한 현장지식이 가득찬 보배.

다년간 논설위원을 지낸 송병호씨와 최무룡씨는 인정 두터운 코스모스의 대들보들. 쉬지 않고 흐르는 지하수맥처럼

솔직한 마음이 흐듯한 느낌을 준다.

유명을 달리한 회원은 다음과 같다. 김희권 이춘구 김학진 문형선 박준석 박석현 오응환 손나진 이문호 주 관 황일훈 김광호 권혁중 조재현 김영희 오일도 등.

코스모스 회원들이 황무지 상태에서 출



지연홍(가운데 한복) 회우의 금혼식에 참석한 회우들.

1950·60·70년대 활약 경제기자 회원 10여명 모두 80代 매월 모여

면서 흐르는 대로 지내되, 중심 잃고 좌왕 우왕하는 부조리엔 면증복배해 왔다. 겸손한 마음, 동양철학의 진수를 지키고 있다.

유유상종으로 박영래씨, 지연홍씨도 박회장과 마찬가지로 내실이 탄탄하다. “참된 빛은 반짝이지 않고 참된 생수는 향기 안나고 무미, 무취 담백한” 스타일.

일본 경제신문 한국지국에 다년간 근무한 적도 있는 코스모스 초대 회장 이귀암씨는 기자생활 최장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유성열씨는 별명이 유 당수. 한국형 마지막 정치인. 유진산씨와 숙질간, 진산의 일급 고문역도 했으나 기간이 짧았다. 유성열씨는 정기간행물 '재정' '해사신문' 발행인을 오래 했다. 코스모스 외에도 도처의 모임에 없어서는 안되는 훌륭한 집

발하여 20세기 후반 한국경제 현실의 반세기 변화과정에서 얻은 견문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1950년 6·25전쟁의 대변혁 과정에서 말장난 같은 경제학은 무용지물. 팔팔하게 약동하는 복잡한 현실경제의 숲 전체를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서 한 분야를 꼼꼼하게 견문한 것은 행운이었다. [4]

바로 잡습니다.

본보 3월호 17면 「우리들 모임-太平路會」 집필자 이상근 회우의 약력을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 본회 회우, 전 서울FM방송 뉴스실장
· 전 한국신문편집인 협회 사무국장

참 행복한 은빛 실버

韓 회우는 1928년 경기도 장단에서 태어나 중학교 때 서울로 유학왔다. 대학 3학년 때 방송국에 입사한 직장의 막내로 굶은 일을 도맡았다.

1958년 연애 반 중매 반으로 우리 나라 제 1호 여성 아나운서인 姜暎淑(78) 여사와 결혼, 슬하에 3형제를 두었다. 姜 여사는 1974년 전통예절 교육단체인 禮智院을 설립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禮智院이란 이름도 韓 회우가 전통예절의 골격인 仁義禮智德에서 따와 지었다는 것. 장남 基元(50)씨는 일본 大和證券 런던지사장으로 해외

에 나가 있고, 차남 基斗(48)씨는 대한항공 상무로 재직하고 있다. 인터뷰를 마친 뒤 사진취재를 위해 용산 전쟁기념관과 '첫 방송 터' 기념비가 세워진 동덕여자대학교 교정까지 흔쾌히 동행하며 '그 때 그 시절' 이야기를 보충 설명한다.

우리 나라 평균 수명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長壽리스크'는 선진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 '준비되지 않은 長壽'는 축복만이 아니라는 의미다. 취재를 마치고 부인과 함께 퇴근하겠다는 장충동 禮智院으로 향하는 韓永燮 회우의 뒷모습에 행복이 짙게 묻어난다. [4]

www.kra.co.kr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馬力

생명존중과 사랑실천의 공익기업 KRA

공정하고 원활한 경마시행으로

말산업을 선도해온 KRA는 경마 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우리의 이웃에 환원하여 더 볼어 따뜻한 사회,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KRA 한국마사회

※과도한 마권구매는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KRA는 마필 생산육성 등 1차 산업에서 오락, 레저, IT산업까지 고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 KRA는 농촌, 생명, 자연사랑을 테마로, 매년 이익금의 사회 환원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와 농어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참여등을 통해 더불어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9 ‘신문사진 人間愛賞’ 수상작

심 사 평

大賞 「화상 입은 중국동포의 눈물」 조선일보 조인원 기자

2009년도 신문사진 인간애상 대상(大賞)에 ‘화상 입은 중국동포의 눈물’(조선일보 조인원 기자), 우수상에 ‘老신랑의 함박웃음’(국민일보 이동희 기자), ‘누워서 꾸는 디자이너의 꿈’(한국일보 홍인기 기자), ‘끝까지 놓지 않고…’(연합뉴스 이정훈 기자)가 선정됐다. 편집상은 대상 수상작을 편집한 조선일보 편집부 김연국 차장, 주영훈 기자에게 돌아갔다.

대상인 ‘화상 입은 중국동포의 눈물’은 지난해 1월 경기 이천 냉동 창고 화재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은 임춘월씨의 투병과 희망 찾기를 주제로 한 포토 스토리. 사고 다음날부터 취재를 시작해 9개월 동안 장기 취재를 하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잊혀지고 마는 대형 사고의 피해자를 조명했고, 2차례 보도를 통해 임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점에서 큰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인 ‘老신랑의 함박웃음’은 가난한 노부부가 구청이 마련해 준 무료 합동결혼식에서 평생 소원이었던 연미복과 면사포를 입고 쓰고는 함박웃음을 짓는 순간을 포착했다. 노부부의 호탕한 웃음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적 약자에게 마음의 행복을 선물하는 것’임을 암시하는 수작이라는 평을 받았다.

다른 우수상인 ‘누워서 꾸는 디자이너의 꿈’은 뇌경변 장애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 34년간 집에만 누워 있던 임연홍씨와 임씨에게 컴퓨터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 준 LG전자 최학호 연구원의 환한 미소를 담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우수상인 ‘끝까지 놓지 않고…’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불의의 부

상으로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바벨을 놓지 않은 ‘미소 역사’ 이배영 선수의 투혼을 다룬 작품. 이 선수는 경기 뒤에도 “후회는 없다, 최선을 다 했기 때문”이라며 환히 웃어 세계인에게 다시 한 번 감동을 선물했다.

이번 심사에는 전국의 70여개 매체에 소속된 한국사진기자협회 550여 회원의 60여점이 출품돼 ‘사람’을 주제로 한 신문사진의 흐름과 나아갈 길을 보여 줬다. 그동안 대상 1점과 우수상 2



점을 선정해 왔는데 우열을 가리기 힘든 뛰어난 사진작품이 매우 많아 우수상 수상작을 하나 더 늘렸다.

‘신문사진 인간애상’은 4·19 혁명 당시 현장을 취재한 사진기자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 한국신문사진동우회가 ‘인간애’를 실천하며 노력하는 후배기

자를 격려하기 위해 1991년 제정했다. 2007년부터 대한언론인회가 위임 받아 신문의 날 행사 때 시상하고 있으며 수상작 심사와 선발은 한국신문사진동우회가 해 오고 있다. [☞](#)

박용운 (본회 회우·한국신문사진동우회장)

2009년도 신문사진 ‘인간애상’ 시상식이 4월 7일 신문의 날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열린다. 시상식 시간은 오후 3시.

수 상 소 감

대상 | 조인원

40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화재사고 다음날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임춘월씨를 만났다. 나는 가족에게



양해를 구해 9개월 동안 병원을 찾았고, 퇴원 후에도 집과 병원을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사진도 찍었다.

당시의 큰 화재사고로 함께 일하던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절망과 희망을 넘나들며 고생하는 우리 사회의 바닥에서 애쓰는 중국동포들의 애환을 다시금 일깨워 주기 위해 ‘인간애상’에 응모했는데 수상하게 되어 대단히 감사하다.

우수상 | 이동희

“신혼여행 가서는 막내를 만드셔야 됩니다”라는 결혼식 사회자 멘트에 노부부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함박웃음을 터뜨렸다.



부부의 날(5월 21일)을 맞이하여 서초구청에서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무료 합동결혼식’을 올려 그 동안 고생만 하던 노인들은 행복이 가득 찬 부부로서 다시 태어나는 감격스런 날이었다.

이번 수상은 노신랑의 함박웃음 만큼이나 제 인생에 큰 함박웃음을 안겨다 주었다. ‘인간애’적인 모습을 앵글에 담으려는 노력과 10년간 나만 믿고 묵묵히 살아온 아내와도 더욱더 금실 좋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해본다.

우수상 | 홍인기

작년 베이징 올림픽을 한 달 앞둔 7월 말 용산의 달동네 좁은 방에 30여년간 ‘뇌경변’ 장애인으로 누워있는 임연홍씨는 컴퓨터 선생님(LG전자 연구원)이자 말벗인 그의 방문에 너무나도 감격해 환하게 웃으며 비록 자기는 누워있더라도 앞으로는 컴퓨터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게 될 꿈을 이루려는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항상 사진 사고현장에서의 기록이 사진기자의 사명이고 보람이라고 여겨 왔는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가는 사회의 따뜻한 모습”을 찾는 데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겠다.

우수상 | 이정훈

올 림 픽 역 도 69Kg급 경기가 펼쳐진 베이징. 우리 이배영 선수는 중국 응원단의 야유에도 불구하고 웃고 있었다.



“그의 기록이 좋아서일까?” 밝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선수의 기록을 아는 나는 그의 금메달을 예상했다. 그러나 그는 금메달을 눈앞에 두고 쓰러지고 말았다. 쓰러져서도 바벨을 ‘끝까지 놓지 않고…’ 두 손으로 움켜잡고 있었다.

항상 방관자적 관점에 서있었던 나에게는 피사체와 하나가 되는 아주 소중한 10년만의 첫 경험이다. 이번 상을 계기로 “사물과 현상을 한발 더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사진기자가 되었으면 한다.

발표 시상- 4월 7일 신문회관

우수상 「老신랑의 함박웃음」 국민일보 이동희 기자



우수상 「누워서 꾸는 디자이너의 꿈」 한국일보 홍인기 기자



우수상 「끝까지 놓지 않고…」 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溫故知新

왜구의 정체도 왜곡하는 日本



황 원 갑

- 본회 회우
- 소설가
- 역사 연구가

일본의 역사 날조와 왜곡은 난치병의 증세를 지나 불치병의 수준이다. 일본의 역사교과서들은 한국사의 시작을 고조선이 아닌 한사군(漢四郡)부터 서술하고, 고대 일본에 영향을 준 나라로 우리 나라보다 중국에 더 무게를 두었으며,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점령하고 식민지로 삼았다는 이른바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 설도 여전히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일본 역사교과서에는 '왜구의 발생 원인이 고려왕조 내부에 있고, 그 주체도 고려인과 일본인의 연합'이라는 황당무계한 내용이 들어 있다. 또한 동학농민운동은 '농민반란'으로 규정, 일본군의 불법 파병을 정당화했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날조 악습이 하루 이틀 된 일도 아니고, 하나같이 터무니없고 어처구니없지만 왜구의 정체에 관해서는 다시 짚어보자.

일본의 역사는 사실 '왜구(倭寇)의

왜구의 발생이 고려의 정치적 혼란에서 비롯됐다거나, 그 구성도 일본인과 고려인의 연합체란 주장은 학설도 아니고 그저 광망(狂妄)의 궤변에 불과하다. 왜구의 만행은 조선왕조가 들어선 뒤에도 변함없이 이어졌다. 1419

년(세종 1년)에는 대규모 대마도원정도 감행했지만 왜구는 1592년(선조 25년) 수십만 정규군으로 변신해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특히 일본 수군은 전체가 해적, 즉 왜구 출신이었다. 굶주림에 못 이겨 시작한 왜구의 노략질이 나라 전체를 강탈하려는 국가차원의 침략전쟁으로 확대 재생산됐던 것이다.

조선왕조가 막을 내린 이후에도 계속된 일본의 침략은 1910년 한국강점과 1941년 태평양전쟁 도발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1945년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우리 나라는 '대일본제국'이라는 간판을 내세운 사상 최악의 왜구집단에

2000년전부터 살인 · 약탈 · 방화 “고려때 발생” 주장 터무니 없어

역사'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일본이 걸핏하면 한국사를 왜곡하고, 그것도 모자라 날조하려는 것은 왜구의 본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구의 본성이란 침략주의에 다름 아니다.

왜구는 고려시대에 비롯된 것이 아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왜구의 침략이 신라 건국 초기, 정확히는 박혁거세 거서간 8년(서기전 50년)부터 나타난다. 왜(倭)가 국호를 일본(日本)으로 바꾼 것은 백제 망국 직후인 서기 670년. 일본 국호의 역사는 1,400년에 불과하지만 왜구의 역사는 2,000년이 넘는 것이다.

6세기까지 국가의 기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왜가 그보다 앞서 '임나일본부'를 세워 한반도 남부를 200년이나 지배했다는 주장은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는 망발이다. 이런 황당무계한 역사 왜곡과 날조가 바로 황국사관요 식민사관이다.

지나간 2,000년 동안 왜구의 침범과 만행으로 겪은 우리 민족의 피해와 고통은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다. 왜구는 해안 뿐 아니라 내륙 깊숙한 곳까지 침범해 살인 · 강간 · 방화 · 약탈을 자행했다.

강점당해 이루 다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던 것이다. 동학농민군과 항일의병, 독립군을 조선 관군보다 더 한층 무자비하게 탄압, 학살한 것도 왜구의 후손인 일본 군경이었다.

하지만 우리 자신도 반성할 점이 많다. 광복 60년이 넘도록 올바른 역사교육을 외면해오지 않았던가. 일제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도 못했다. 나아가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하며 흠집내기를 예사로 여기고 있으니 참으로 딱하기 그지없는 노릇이다.

올바른 역사교육은 팽개쳐버리고, 고유의 정신문화는 하찮게 여긴 채 물질만능, 황금제일주의 풍조에 휩쓸렸으니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역사전쟁의 선전포고를 당한 것이다.

사실 우리가 오늘과 같은 난국을 자초한 것도 역사교육을 등한시한 어리석음의 자업자득이다. 역사를 계속해서 하찮게 여기고, 백년대계인 교육을 여전히 '시험기계'나 양산하는 방편으로 삼는다면 앞으로도 일본 지도층의 망언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또한 독도를 지키기도 어렵고, 잘못된 왜구의 역사를 바로잡기도 힘들 것이다. [국문]

雪國에 펼친 환상의 祝祭

日本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를 다녀와서

2월 말의 유바리(夕張)는 온통 눈 천지였다.

일본 북해도 삿포로 공항에서 1시간 반 가량 함께 전동차를 타고 달리는 여정은 산도 들도 인가도 모두 하얀 눈으로 덮여 있어서 마치 영화 '닥터 지바고'의 설원을 지나는 듯한 환상에 빠지게 했다.

2009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영화제가 열린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눈은 매일 쏟아졌다. 내린 눈은 녹지 않고 쌓이기만 해서 도로 양편은 높은 설벽의 담장을 이루었다. 그 안에서 열리는 영화제는 글자 그대로 설국(雪國)의 환상 축제다. 영화제 주제가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아닌가.

필자가 이 판타스틱영화제에 참석하게 된 것은 우리 나라의 '부천 국제 판타스틱영화제' 덕분이다. 부천영화제와 유바리영화제는 오래전부터 자매결연을 했고 영화제 기간에는 서로 관계자를 초청하고 왕래하며 우의를 다져왔다. 이 번의 참가자는 원로감독 심우섭(부천영화제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강종영(후원회 감사) 조관희(조직위원·이사) 3인이다. 신인감독 최위안의 독립영화 '저녁의 게임'이 경쟁부문에서 특별상(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연륜으로 따지자면 유바리영화제가 부천영화제보다 6살 위다. 사실상 부천영화제는 그 탄생부터 유바리영화제를 모델로 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계다. 판타스틱을 주제로 하고 경쟁부문에 저예산의 독립영화와 단편영화 부문을 두어 신진 영화작가의 진출을 유도한다는 점도 같다.

유바리영화제는 이런 특색으로 한동안 일본 제일의 국제영화제가 되었고 침체기 일본영화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었다. 그런데 근년에 들어와서는 사정이 판판으로 바뀌었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부천영화제는 회를 거듭할수록 번창하는데, 유바리는 쇠락하여 존폐위기를 겪었고 급기야 2007년도에는 막을 올리지도 못하였다. 부천영화제에는 해마다 100여개국에서 200여편의 장·단편 영화를 출품하고 배우 감독 등 150여명의 영화관계자가 세계 도처에서 몰려오는데 유바리는 그렇지 못하다. 이 번의 경우를 보면 외국 출품 영화는 10여편에 불과하고 외국인 참가자도 30명 내외라고 영화제 실무자는 말한다.

"국제영화제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사정입니다. 유바리市 자체가 부도가 나서 영화제 예산이 없어요. 주민들의 후원금과 자원봉사로 이나마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도가와 야스히로(外川康弘)



조 관 희

· 본회 회우
· 전 서울신문 출판 편집국장

영화제 사무국장의 말이다.

20년 역사를 지닌 세계 유수의 유바리영화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물론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이 바다에 깔려있다고 하지만 그보다는 유바리市 자체의 무모한 개발 투자와 이로 인한 기업들의 도산이 직접 원인이라고 유바리상공회의소 澤田 회장은 말한다.



유바리 국제 영화제에 세워진 美 애니메이션 영화 상징물 앞에서.

市당국 무리한 투자로 존폐위기 市民들 자원봉사로 명맥 유지해

겨울동안 150cm 이상의 눈이 온다는 유바리시는 봄 여름 가을 그 어느 계절이 와도 그 수려한 산천과 맑은 공기, 넘치는 온천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 우리 한국인도 즐겨 찾는 명소에 틀림 없다. 그래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를 했다. 수십개의 스키장, 골프장, 온천장, 박물관, 기념관, 그리고 유바리영화제도 그 중의 하나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유바리 거리는 한 마디로 쓸쓸하다. 20년 전에 140,000명이던 주민이 현재는 그 10분의 1인 14,000명으로 줄었다는 얘기다. "지방자치단체의 무모한 개발투자, 그 실패의 표본으로서 유바리가 꼽힌다"며 쓴 웃음 짓는 한 시청 공무원의 말이 남의 얘기 같지 않다.

영화제의 개막식과 폐막식이 열리고 출품영화를 상영하는 유바리 시민회관은 오래된 건물이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드나들기에는 출입문이 비좁았다.

그런데 무슨 국제영화제가 이런가? 사방 10m도 안되는 비좁은 출입구 안에는 이곳 특산품과 기념품, 음료수를 파는 좌판과 모금함이 놓여 있었다. 영화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했다는 것이다. 이런 풍경은 영화제 기간동안 영화를 상영하는 모든 장소에서 볼 수 있었다. 영화제라면 먼저 화려한 여배우의 의상과 레드 카피트를 연상한게 잘못된가? 그렇다. 여기는 칸이나 베니스가 아니다. 도쿄도 아니고 서울의 세종문화회관도 아니다. 어쩌면 문을 닫을지도 모를 영화제를 유바리 시민 자신들의 손으로 살려내겠다는 의지의 발로인 것이다. 이런 자세는 영화를 관람하는 시민들의 진지한 모습에서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영화가 끝나면 박수로 사의를 표했다. 불이 켜지기도 전에 우르르 몰려 나가는 극장 풍경은 볼 수 없었다.

유바리 시기에 들어서면서 맨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다. 제임스 딘의 '지상에서 영원으로' 폴 뉴먼과 캐서린 로스의 '내일을 향해 쏴라' 올리비아 핫세의 '로미오와 줄리엣' 등 극장 앞에 나붙어 있었던 옛 명화의 광고 포스터다. 어느 건물이든 눈에 잘 띄는 곳에는 으레 이런 대형 영화 포스터가 붙어 있어 올드 팬의 향수를 자아내며 '이곳이 영화의 거리'임을 자랑한다.

인구 14,000명의 유바리에는 200명으로 구성된 '유바리 시네마 클럽'이 있다. 이들은 회비를 모아 영화감상회를 열고 합평회를 하는 등 영화사랑과 영화의 도시 유바리 사랑을 다지는 것이다.

이번 영화제는 가정주부 등 시민들로 구성된 600명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치러졌다고 한다. 그 뿐 아니다. 요미우리, 일본경제신문 지사를 비롯하여 TV 라디오 등 유바리의 모든 매스컴이 총동원하여 보도와 무료광고로 영화제를 후원했다고 한다. 도쿄 등 외지로 떠난 시민들이 대거 참석하여 영화제의 새 출발을 기뻐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다. 중단된 영화제를 되살리는데 앞장 선 후지구라(藤倉) 유바리 시장은 개폐막식 인사로 "오가에리나사이"를 외쳤고 객석은 일제히 "다다이마"로 화답했다.

가장 큰 감동은 영화제를 끝낸 다음 날 오후의 '사요나라 파티'와 시청 앞 마당 눈속에서 열린 '스토브 파티'였다. 자원봉사 주민들이 직접 마련해온 음식과 노루고기 멧돼지고기를 굽는 스토브 파티는 이 유바리 시민의 활기를 대변하는 관민일체의 축제였다. 이 열정과 봉사정신이 바로 경제파탄을 극복하고 중단된 영화제를 되살린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방송인 명예의 전당 故 李貞錫회장 헌정



故 李貞錫 전 회장

한국 방송영상산업진흥원(원장 박준영) 주관으로 우리 나라 방송발전에 공헌한 선배 원로들의 업적을 기리는 '방송인 명예의 전당' 행사에서 故 이정석 대한언론인회 전 회장의 업적을 영원히 기록에 남기기 위해 '명예의 전당'에 헌정했다. 지난 3월 27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된 헌정식에는 부인 박소현 여사와 자녀분들이 참석하였고, 대한언론인회 회우와 KBS 등 옛 동료와 후배들이 많이 참석했다.

고 이정석 전 회장은 1954년 조선일보 1기로 기자생활을 시작하여 1963년 동아방송(DBS) 개국과 함께 신문에서 방송으로 매체를 이동했다. 최창봉 체제의 방송 보도에 적성이 맞는 기자로 선발된 것이다. '첫 직장인 조선일보를 떠나 '동아'라는 새 직장으로 옮겨가야 하나, 그동안 나를 아끼고 키워준 '조선'을 떠나는데 대한 죄책감 등이 오락가락했지만, 그 당시 동기생들이 거의 타사로 떠나 친구같은 외톨이 신세가 되었던 차에 월급 많고 보너스도 주는 '동아'로 가게 됐다'고 술회했다. (<한국의 방송인> 이정석)

불펜 하나로 '내리다지'만 써왔던 신문기자가 녹음기를 메고 취재해서 편집 구성하는 작업은 쉽지 않은 큰 변화였다. 구어체 방송용어를 익히는 데도 특강을 받아야 했고 손으로 테이프를 감는 수동식 15분짜리 녹음기로 취재 편집하는 것도 보통 어려움이 아니었다고 했다.

고 이정석 전 회장의 첫 작업으로 DBS 리포트는 노상국 기자와 1조를 이루어 3일 밤을 새워 제작방송하여 호평을 받았다. 아나운서의 스트레이트 뉴스낭독에서 퍼스널리티의 전문성으로 진행하는 'DBS뉴스쇼'로 발전 개편하면서 앵커로서 명성을 높이고 뉴스의 청취율을 제고시키는데 공헌했다.

1965년 주월 특파원으로 현지에서 美 육군 특수부대인 그린베레팀과 캄보디아 국경 호치민루트(월맹군 남침루트) 2일간의 취재 실황은 사진과 글이 신문 2페이지에 걸쳐 실렸고, DBS를 통해서 생생한 녹음이 방송되었다. 우리 나라 기자로서는 처음이라는 월남전 종군 르포였다.

1971년 KBS로 옮겨 본격적인 영상매체를 관장하는 보도 총책임자의 위치에서 지휘했고, 런던, 파리, 워싱턴, 미주 총국장으로 해외 특파원 활동을 했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의 단독 인터뷰는 괄목할 만한 특종이었다. 88올림픽 본부장으로서 세계 각국의 중계방송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한국방송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데 중심역할을 했다.

1988년 한국방송대상 공로상 수상(한국방송협회).

安平善(본회회우)

연예계 恥部 끝장 내야 한다

탤런트 장자연 자살을 보고

연예계 치부가 또 터졌다. 연예계의 비리와 추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자살한 탤런트 장자연씨가 남긴 문건은 사회 병폐를 적나라하게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문건 가운데 일부가 공개되면서 인터넷에는 관련자의 실명이 기습적으로 공개되어 갖가지 루머가 사회를 흔들고 있다. ‘힘 없는 배우’로서 부당하게 당했다는 억울한 피해사례들이 적혀있었다. 그간 소문으로 떠돌아다니던 연예계 추문들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성 상납, 술 시중, 노예 계약, 상습 폭행 등 소속 연예기획사의 횡포와 힘 없는 배우의 설움이 담겨져 있다. 특히 문건에는 죽은 장씨가 기획사의 강요에 의해 술 접대를 했다는 각계 인사들 이름까지 올라있어 세간의 화제로 떠올랐다. 이번 파문의 경우 방송 언론 재계 등 유력 인사들의 실명이 거론되어 사회적 폭발성을 더하고 있다.

장씨의 문건이 남긴 연예계 비리는 단순한 연예계 치부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병폐요 치욕이다.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전에도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표준 계약서’를 만든다는 등 수선을 떨었지만 유아무야되고 말았다. 제 17대 국회 당시에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하윤금 박사 주도로 ‘공인연예인기획자법’이 발의됐었다. 연예인 계약을 대행해 주는 자에 한해 국가공

인 자격증을 부여하고, 법정 수입료만 받도록 제 작업 등을 제한하는 법안이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입법은 커녕 재상정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 논리에 맡기자”는 주장에 밀렸기 때문이다. 도대체 장씨 같은 연예인 몇 명이 더 죽어야 신인급 연예인의 노예문서라는 연예기획사의 계약서가 바뀌고 연예산업이 올바른 길로 들어설 것인가.

배우 탤런트 가수 개그맨으로 데뷔해서 스타가 되면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거머쥔다. 또 옛날처럼 ‘판따라’로 천대받지도 않고 국회의원과 기업인으로 자



김 화

· 본보 논설위원
· 영화 평론가

부를 다른 내용으로 시청자의 인기를 끌었다. 드라마의 허구가 아니라 실재상황이었다. 연예기획사는 톱 클래스 연예인에게는 계약금으로 몇 십억원을 투입하면서도 신인에게는 노예문서보다 더 가혹한 계약조건으로 얹매놓고 노예처럼 혹사시킨다. 방송드라마나 영화에는 주연급 계약할 때 덤으로 묶어서 출연시키는 것은 그래도 행운이다.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사나 술자리에 도구로 사용해 잠자리를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면 폭행도 주저하지 않는다. 악덕 연예기획사는 출연시킬 계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폭로까지 나왔다. 부끄럽지만 은밀하게 돈과 성이 거래되는 게 한국연예계의 현실이다.

장자연씨의 자살은 유족의 말처럼 “기획사 대표인 유씨와 김씨가 벌인 법정 싸움의 희생”일 수 있다. 문건은 장씨가 소속해있던 연예기획사로부터 독립해 자신의 기획사를 차린 매니저 유모씨가 장씨와 함께 만든 뒤 보관해왔다고 한다. 유씨는 분가하면서 장씨 회사측 이름 있는 연예인 두서너명을 데리고 나왔다가 장씨가 속한 기획사 대표인 김 모씨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죽은 장씨의 문건 사건을 경찰이 본격수사에 들어갔으니 차제에 연예계의 치부를 확실하게 도려내야 한다. 이제까지처럼 유아무야로 끝내면 장씨 문건 같은 사건은 또 일어나고 아까운 생명을 또 잃을지도 모른다.

경찰수사와 별도로 국회는 연예계의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혁명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민주당의 최문순 의원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기대를 걸어본다. 연예계의 비합리적인 계약을 개선하는데 주무당국인 문체부는 뒷집만 지고 있지 말고 현실적인 감독을 해야 한다.

연예계의 비리는 연예계만의 것이 아닌 우리 사회의 확대경이기에 신속한 수사와 입법으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문]

소문이 사실로 ... 불합리한 계약관행 고쳐야

리 잡을 만큼 사회적 지위도 상승했다. 따라서 4년제 대학을 비롯해 사설학원에 이르기까지 연예인 양성기관도 늘어나 성업을 하고 있고, 일확천금을 노린 연예인 지망생도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연예권력으로 등장한 게 소위 연예기획사들이다.

지난 해 SBS TV가 방송한 ‘온 에어’라는 드라마는 신인 여배우가 스타가 되어가는 과정과 그에 따른 연예계 치

획은 처음부터 없으면서 행사용 소모품으로 신인 여배우를 선발하기도 한다. 그래서 성 상납은 공공연한 연예계의 비밀이요 관례다. 수입이 별로인 신인 여배우가 로드매니저의 월급까지 책임져야 하니 집안의 지원을 받지 못한 신인 여배우가 택할 수 있는 길은 뻔하지 않은가. 돈 있는 스폰서를 구하는 길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은밀하게 계약결혼이 이뤄지고, 얼마 전에는 한 유명 여가수의 “만나만 주어도 3억

이회영(李海榮) 대령은 육사 5기 출신이다. 그의 고향 평북 의주를 떠나 10여명의 동지들과 함께 야반을 뚫고 3·8선을 넘을 때 능선에는 어김없이 소련군 병사가 장총을 메고 경계근무를 하고 있었다. 일행은 저놈의 눈을 속이고 어떻게 넘을 것인가를 궁리하고 있었다. 이 때 이회영은 모두에게 횃불을 만들라고 했다. 횃불은 뭘 하려고 ‘로스케’ 몰래 살금살금 넘어야지. 모두 한결 같이 반대했다. 군소리 말고 횃불을 만들어! 그러고는 횃불에 불을 붙여 이회영을 선두에 일열중대로 유유히 능선을 넘기 시작했다. 소련군 병사는 놀라서 저것들이 무언가 보고만 있었다.

‘횃불 월경’. 이 일화는 먼 훗날까지 이회영을 따라 다녔다.

그의 선친 이유필(李裕弼)옹은 上海臨政의 요인이었으며 해방후 한 때 평북 민선지사를 지내다가 월남도중 병사했다. 정부는 1963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했다.

이 대령이 육본 병기처장을 지낼 때 육사 5기생들은 육본의 요직을 맡고 있었다. 정오가 되면 약속이나 한 듯 이 대령 방으로 몰려들어 삼각지 근처 냉면집에서 점심을 함께 했다. 육본 고급장교들은 부러워했다.

張都峽 장군이 중장 진급 육군 참모총장으로 발령받고 육군본부 연병장 ‘전쟁기념관 자리’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총장실로 들어서자 맨 먼저 이회영 대령을 불러 들였다. 이 대령은 의주군, 장 장군은 용천군 출신으로 인접 군이

고, 나이는 이 대령이 두어살 위였다. “나는 아직 육본의 분위기에 생소하니 선배가 도와 주어야겠다”고. 이 소문은 삼시간에 육본내에 퍼져 나갔으나 이 대령의 몸가짐은 변함이 없었다.

5·16군사혁명이 터졌다. 장도영 중장은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겸 내각수반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따라서 이 대령은 비서실장으로 가야만 했다.

육본의 5기생들이 그의 방으로 몰려와 한사코 말했다. 왜 사지로 뛰어들려

잊지 못할 사람들

李海榮 대령의 추억



정 준 모

· 본회 회우
· 전 신아일보 도쿄특파원
· 6·25 중군기자

줄줄이 사형 선고됐다. 재판정 공기는 일순 싸늘해졌다. 취재석의 기자들도 숨을 죽였다. 이 때까지 각광을 받아왔던 공수단장 朴致玉 대령이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옆에 서있던 이 대령이 그의 옆구리를 톡톡치며 “괜찮아 괜찮아!”라며 달랬다.

다음 날 아침 신문은 일제히 이것을 가십기사로 실었다. 많은 독자는 이런 호방한 군인이 있는가고 감탄했다. 이 대령은 사형선고를 받고 마포형무소(교도소)로

러분 나 먼저 갑니다”고 하직 인사를 했다. 남은 사형수들은 감방 창살 틈으로 내다보며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 사형수 이회영은 형장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마포형무소에서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된 것이었다. 사형수 이회영의 호방한 수감태도에 교도관들도 탄복하여 끝내는 탕수육과 배갈을 시켜 사식으로 넣어주기까지 했다.

내가 東京 특파원으로 있을 때 이호 대사 후임으로 김영선 대사가 부임했다. 대사실에서 특파원들과 면담중 이회영 대령 이야기가 나왔고, 김 대사는 민주당 정권 장면총리 시절 재무장관으로 있다가 5·16으로 수감되어 사형수 이회영과 같은 감방에서 지내게 됐는데 수감생활을 하면서 그의 인품에 끌려 하루 하루 그리 지루하지 않았노라고 털어놓았다. 환담이 끝날무렵 나더러 군 출신이냐고 물었다.

1962년 3·1절 경축기념식이 서울운동장(없어진 동대문운동장)에서 거행됐다. 경축식이 끝나고 朴正熙 최고회의 의장은 맨 앞줄의 유족들과 악수하며 나가는데 사형수 이회영의 자당과 마주쳤다. “이회영이 내 아들이외다. 죽이지는 마라주시지요.” 악수한 손을 잡고 내뱉은 투박한 평북 사투리였다.

1963년 5·16 장도영 일파는 모두 특사로 풀려나게 됐다. 朴 최고회의 의장은 혁명 후 많은 강패 두목과 밀수배는 가차없이 사형을 집행시켰으나 군인은 단 한 명도 희생자를 내지 않았다.

18면으로 이어집니다.

反革命 사형언도 받고도 당당 出監때 記者론 필자 혼자 마중

는가고, 그러나 이 대령은 의리상 가지 않으면 비겁한 자가 되고 만다. 결과가 뻔한 것을 난들 모르겠냐고.

얼마뒤 張 수반은 등청도중 피포, 구금됐고 이 대령도 구속됐다.

혁명재판이 열렸고 張 피고 일파는

압송되자 다음 날 아침까지 폭 잠들었다. 교도관들은 잠에서 깨어난 사형수 이 대령을 향해 “당신, 사람이야”고 놀라워 했다. 얼마 후 밤에 사형수 이회영이 불러 나갔다. 수감이 채워지고 오랏줄에 묶여 교도관을 따라 나가면서 “여



회우동정

(가나다순)

서울 마주협회장으로



★ 강용식(21세기 방송문화연구소 이사장) 회우가 제 7대 서울 마주협회장으로 선출됐다. 강 신임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관훈클럽 사진강좌 맡아



★ 고명진(뉴시스 사진영상국장) 회우는 관훈클럽 사진 강좌(매주 수·금)의 강사를 맡아 8주 동안 사진 강의를 맡았다.

KBS 사우회장 취임



★ 김수웅 회우가 제 11대 KBS 사우회 회장에 취임했다. 김 신임 회장은 이흥기 회우와 이흥주, 홍금표, 김성현, 한안성씨를 임기 2년의 부회장에 선임했다.

日사진작가 전시회 개최



★ 김정일(전 한체대 대학원장) 회우는 3월 중순 요코하마를 방문, 일본인 사진작가 사토 다카시(佐藤 隆司)의 한국 문화재 작품 60여점을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인사동 김영섭 사진 갤러리에서 전시하기로 사토씨와 합의했다.

신문협회 이사로 선임



★ 박기정(전남일보 사장) 회우가 3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협회 제 47차 정기총회에서 새 이사로 선임됐다.

조선일보 특별 인터뷰



★ 신동식(한국 여성언론인연합 대표) 회우는 3월 24일자 조선일보 35면에 기자생활을 되돌아 보는 특별 인터뷰를 했다. 신 회우는 1984년 제 1회 '최은희 여기자상'을 수상했고 여기자들의 권익과 친목을 위한 한국여성언론인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 세미나



★ 윤종보(글로벌 파이낸스 포럼 회장) 회우는 3월 25일 오후 여의도 한국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의 대변화...'를 주제로 창립 세미나를 열었다.

'50인전' 지방도시 전시



★ 윤주영(사진작가·전문공부장관) 회우는 2008년 10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한 '50인 - 우리 세대를 이

끌어 온 사람들' 사진전의 지방전시를 시작했다. 3월 11일부터 16일까지 대구를 시작으로 지방전시회는 6월 부산, 9월 광주에서 각각 전시할 계획이다.

中國 세계자연유산 탐방



★ 이규섭(상좌), 박연호(상우), 이용권(하좌), 김종열(하우) 회우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중국 윈난성에 위치한 세계자연유산 쓰린(石林) 등을 탐방했다.

인터넷신문 주필로 취임



★ 이두석 회우가 2월 16일에 창간된 인터넷 매체 '아우어 뉴스(www.ournews.kr)'의 주필에 선정됐다.

관악언론상 수상



★ 이정식(CBS 사장) 회우가 2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대 출신 언론인의 모임인 관악언론인회에서 관악언론상을 수상했다.

英國 평가시험 펠로우회원으로



★ 이태교(서울부동산포럼 회장) 회우는 3일 부동산 학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국왕립평가사협회(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s) 펠로우 회원으로 초빙되었다. 이 회우는 저명인사 초빙 프로그램인 에미넌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회원이 되었다. 영국왕립평가사협회는 1868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의 부동산평가 전문자격사 단체이다.

국회의원 친목회장으로



★ 임덕규(월간 디플로머시 회장) 회우는 3월 3일 열린 11대 국회의원 친목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日本 뒷골목 여행



★ 조성국(좌), 오전식(우) 회우는 지난 해 말 대마도를 여행한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일본 오사카, 교토 등 일본의 뒷골목을 누비면서 먹고, 마시고, 보는 즐거움을 흠뻑 누렸다고.

인도 불교성지 순례



★ 한기호(운송신문 회장) 회우는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보름동안 인도 불교 성지를 순례했다. 독실한 불교 신자인 한 회우는 순례 중 다람살라에서 달라이 라마를 알현했다.

주 소 변 경

★ 김진기 서울 도봉구 쌍문동 340-16 미래빌라트 4동 103호
★ 안종화 서울 성북구 정릉동 103번지 피오레 아파트 202-902
Tel. 919-5590

e-mail 주 소

★ 황대연 회우의 e-mail 주소는 hwandy31@naver.com입니다.

전 화 번 호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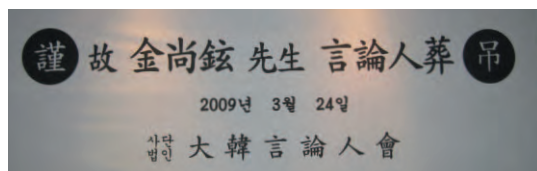
★ 이상호 회우의 휴대전화 번호가 010-3855-8624로 변경됐다.

자 녀 결 혼

★ 정진규 회우가 3월 28일(토) 오후 1시에 웨스턴조선 1층 그랜드 볼룸에서 아들 원식 군의 혼례식을 올렸다.

회 비 납 부

고수균, 권영국(강원), 김규문, 김남술, 김성수, 김양삼, 김영일, 류무정, 문명호, 박용근, 손세일, 신동철, 신정호, 신현구, 윤익한, 이선희, 이현구, 이희경, 정준모, 정준창, 정진규, 조두흠, 조재린, 최희조, 한강수, 허경규, 이우진(2월 누락)



고 金尙鉉 회우 언론인장

미수를 맞은 김상현 회우가 지난 3월 25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본회는 유족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고인을 25일 언론인장으로 모셨다.

이 날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거행된 김상현 선생 언론인장에는 유족과 본회 조창화 회장, 신동철, 문명호 부회장 그리고 정운종 행사위원장이 참석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안동 출신인 고인은 동화통신 편집국장과 조선일보 논설위원, 신

아일보 상임이사를 끝으로 언론계를 떠난 이후에도 환경운동과 저술활동에 전념했고 현재까지 영어학원을 창설해 영어교육 사업에 전념했다.

조창화 회장은 추도사에서 고 김상현 회우는 언론계 대선배로 탁월한 영어능력으로 영자지를 발행했고 뛰어난 필력은 고인이 언론계를 떠난 뒤 저술활동으로 이어져 많은 저술을 남겼다고 기렸다.

고 김상현 회우는 영결식에 이어 이날 오후 경북 안동 선산에 안장됐다. [4]

17면에서 이어집니다.

출감되는 오후 2시를 앞두고 나는 고민에 빠졌다. 당시는 중앙정보부원의 눈초리가 매서운 때였다. 더구나 나는 서울신문 기자가 아니었던가. 오후 2시를 앞두고 나는 서대문형무소 출감문 앞에 가 있었다.

박치옥 대령도 나왔고 이회영 대령도 나왔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머리를 박박 깎았는데 이 대령 만이 장발이었다. 5기생 5~6명 틈에 끼여 지프차로 용두동 허름한 이 대령 집으로 갔다. 민간인은 나 혼자였으나 격의 없이 밤늦도록 회포를 풀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한 30년도 더 흘렀던가. 이 대령이 수도국군종합병원에서 한쪽 폐를 들어내는 대수술을 받았다는 소문이 들려 왔다. "중앙정보부에서의 고문 때 내가 양동이 물을

너덧동이는 들이켰을 것"이야"란 말이 떠올랐다. 혹독한 고문의 후유증인가. 그로부터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이 대령은 체념한 것인가. 들려오는 소문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주로 두주불사, 마시고 또 마셨다니 견뎌낼 수가 없지.

신의주 출신인 桂城 회우와 의논하기를 병문안을 가자고 했는데, 그냥 갈 수는 없고 단 몇백만원이라도 마련해서... 그렇게 미루다가 때를 놓쳤다. 5년전 어느날 桂城이 평북도민회에서 소식이라고 그의 부고를 알렸다. 그것도 大田국립묘지 현충원에 묻힌지 한참 후였다.

내 생애 가장 후회스런 일이다. 언제나 전화통화에선 "잡니다." 그 다정한 목소리는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좀 더 살아주었다면 노후가 덜 고독했을 텐데. [4]

의료비 지원 결의

2009년 제 1차 후생복지위원회가 3월 24일 오전에 본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박응칠 위원장과 김성수, 양성목, 주종환, 최무룡, 한동희 위원이 참석해 김양삼, 맹태균, 박화진, 이대영, 전종열, 호천웅 회우가 신청한 의료비 지원을 모두 승인했다. 의료비는 본회 운영규정 20조 2항에 따라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날 심의 과정에서 일부 신청자의 의료비 지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신청 요건상 문제가 없어 지원을 승인했다.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힘으로 지금, 세상의 전쟁을 끝낼 수도
지구온난화를 끝낼 수도, 인류의 가난을 끝낼 수도 없지만
4교시만 끝나면 홀로 교실을 빠져나오는
선재의 배고픈 점심시간은 끝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

1004 + **SEND

사람을 향합니다

녹색성장 대한민국 원자력이 가장 큰 힘입니다

울진원자력

월성원자력

고리원자력

영광원자력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녹색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곳!

우리에게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원자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력의 40%를 공급하는 희망에너지, 원자력!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희망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주